대구광역일보

1996년 7월 11일 창간 제 3780호 대표전화 (053)253-0000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www.dgy.co.kr 대구 -4~6℃ 경북 -7~4℃ 단기 4349년(음력 11월 30일)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겨울방학이 왔다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능실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하굣길에 나서고 있다. 뉴스1

권영진 대구시장 "새누리당 탈당 안한다" 강력 부인

송년 기자간담회서 잔류 의사

언론 등을 통해 새누리당을 탈당, '개혁보수신당'에 참여할 것이란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27일 탈당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시청 회의실에서 가진 송년기자간담회에서 "대구시장 자리가 여의도 정치에 함부로 흔들리거나 휩쓸리는 자리가 아니다"며, 새누리당 잔류 의사를 밝혔다.

권 시장은 "앞으로도 여의도 정치는 많이 흔들리겠지만 시장이 무겁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다"며, "지금 새누리당 탈당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앞으로의 제 행동 판단기준은 오직 대구시민을 지키고 대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것은 그런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탈당을 결행한 신당 관계자로부터 영입의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요청을 많이 받았지만 대구시장 자리는 간단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시장은 향후에도 탈당하지 않고 새누리당 당적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대구시장이 움직이려면 울림이 있어야 한다"며, "만약 울림이 있다면 그때는 움직일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새누리당을 나가는 분들도 분열을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수와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개혁과 혁신에 나서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경북 새누리당 탈당 유승민·주호영 단 2명

매일신문과 TBC 여론조사
대구 시민 탈당과 신당 창당 찬성 46.3%, 반대 48.3%
경북 도민 찬성 43.6%와 반대 49.8% 반대의견 우세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29명이 27일 오전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당이 아니다"라며, 집단 탈당과 분당을 선언했지만 새누리당의 최대 지지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는 유승민(대구 동을),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만 포함됐다.

이들은 분당 선언문에서 친박(친박근혜)계를 향해 "새누리당 내 친박 패권 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사상 최악의 헌법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국민 앞에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득권에 매달려 반성과 쇄신을 끝내 거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분의 대상이 된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새로운 보수정당을 세워가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인 대구·경북 지역은 적게는 5명, 최대 10여 명이 참여할 것이란 당초 전망이 무색하게 전체 의원 25명 가운데 단 2명만 이번 탈당에 참여했을 뿐이다.

현재 경북 지역 의원 13명 전원과 대구 지역 의원 12명 중 10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탈당과 신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지난 25일 당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구 사무소에서 가진 탈당 관련 설명회에서 김상훈(대구 서구), 곽대훈(대구 달서갑),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 등을 탈당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로 거론했지만 무산됐다.

특히, 원내대표 경선 직후 밝힌 탈당 예고 당시 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포함됐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마저 이번 탈당 결행에는 빠졌다.

물론 유 의원 등 탈당파 의원들은 조만간 2차, 3차 등 추가 탈당자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충청권 의원에 국한될 뿐 대구·경북권 의원들의 추가 탈당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것이 지역 분위기다.

실제 이날 오전 매일신문과 TBC가 공동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대구 시민들은 탈당과 신당 창당에 대해 찬성 46.3%, 반대 48.3%로 나타났고 경북 도민들은 찬성 43.6%와 반대 49.8%로 모두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게다가 의원들은 지역구 현장에서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강한 반대 여론이 있다며, 새누리당 탈당과 신당 참여에 대해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지역민들의 명령은 당에 남아 당을 개혁하든 인적 청산을 하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라며, "이 명령을 거부하고 나가려면 다른 의원들에게 조급하게 매달리지 말고 그냥 본인들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유승민 의원을 겨냥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교육청 시국선언 교사 전보 '갑론을박'

전국교직원노조 대구지부 '부당한 강제 인사조치' 반발
대구교육청 '정당한 인사' 반박

전국교직원노조 대구지부는 최근 교사 2명이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비정기 전보 인사 조치되자 '부당한 강제 인사조치'라고 반발하고 대구교육청은 '인사관리원칙에 따른 정당한 인사'라며, 반박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27일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시국선언에 대구·경북교육청만 징계와 행정처분으로 국정화 반대 교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명의 교사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지난 5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6월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을 불복하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했지만 지난 8월 해당 청구가 기각됐다.

현재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2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2명의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는 교육청 인사관리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로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전보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제21조(비정기전보)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현임교 근무 연한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비정기 전보 대상 교사가 교기 지도, 기능 지도 및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받아 비정기 전보를 일정 기간 유예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되면 예외없이 전보조치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비정기 전보는 징계를 받은 모든 교원에게 행해지는 불가피한 행정조치이지 특정한 사안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하고 강제적인 인사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사드 성주투쟁위 "롯데 사드 부지 제공 중단해야"

27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앞 집회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거부, 신동빈 회장 면담' 촉구 예정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위원장 이종희) 등 5개 단체는 27일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등 5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롯데 신동빈 회장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거부 및 신동빈 회장 면담'을 촉구할 예정이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참가자들은 "국회와 특검은 정부와 롯데의 '빅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확산되고 정치권의 사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롯데 간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제공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신동빈 회장 면담 성사와 롯데의 입장을 지켜본 후 특검 수사 의뢰, 롯데 백화점 등 피켓팅 확대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노균 기자

신세계백화점 현수막 부실시공

27일 오후 3시 50분경 신세계백화점 개점시 설치한 대형현수막이 떨어져 바람에 날려 백화점 직원 10여 명이 인근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

"대북제재 강화로 김정은 정권 위기"

탈북 외교관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

"북한 주민들은 대북제재에 상당한 동요 느껴"

"北 인권 문제에선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지난 8월에 입국한 탈북 외교관 태영호 전(前) 주영 북한 공사는 27일 올해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270호와 관련 "대북제재로 인해 김정은 정권이 상당한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의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지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경제적 숫자를 가지고 대북제재 효과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며, "판단할 때는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심리 변화와 김정은 경제 정책의 파탄 유무"라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올해 3월 대북제재가 나오자 김정은이 간부들을 모아 놓고 려명거리를 10월 10일까지 완성해 대북제재가 물거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호통을 쳤다"면서도 "(그러나) 이 려명거리는 완성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북한 사람들은 대북제재 심화 속에서 상당한 동요를 느낀다"며, "때문에 김정은은 여러가지 새로운 정책을 많이 내놨다"고 전했다.

그는 "김정은은 경제특구개발 정책을 내고 원산지대를 세계적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라고 지시했고 이를 위해 인력과 자금이 투입됐다"며, "그런데 대북제재 속에서 김정은의 이런 정책이 가능하겠냐. 제재는 김정은의 소기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 전 공사는 북한외교와 관련 "북한 외교 전반을 가장 위축시키는 것은 인권문제"라며, "핵문제는 많은 나라들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올라가는지를 물어보고 관심을 갖기도 해서 북한 외교관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인권문제를 물어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없다"며, "인권문제에 대한 논쟁을 벌일수록 북한이 수세에 빠진다. 북한은 인권 문제에선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올해 3월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은 처음으로 공식 표 대결을 포기했다"며, "이건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對)북한 인권공세의 커다란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겠다고 적시 못한 것이 아쉽다"며, "김정은이 무슨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문이 북한 내부에 흘러갔다고 생각해봐라. 때문에 북한은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수신당, 새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추대

정책위의장 이종구 원내수석 정양석

비박계 신당인 가칭 '개혁보수신당'은 27일 새 원내대표에 주호영 의원(4선·대구 수성을)을 합의 추대했다.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을 탈당한 28명의 비박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에 주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김영우, 김용태 의원은 의총에 불참했다.

보수신당이 이처럼 TK(대구·경북) 출신의 주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임한 것은 신당의 본류가 보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의원은 원내대표 추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해서 개혁보수신당이 빠른 시간 안에 창당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정통 보수정당이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당은 또 정책위의장에 이종구 의원(3선·서울 강남갑)을,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정양석(재선·서울 강북갑) 의원을 선임했다. 이종구 신임 정책위의장은 "여러 의원들과 정책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약도 새롭게 만들고, 여러가지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잘 정리해 국민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정양석 원내수석은 "의원들의 뜻이 원내에 반영되도록 충실한 통로, 허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에는 재선의 장제원, 오신환 의원이 임명됐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에 사랑 받는 정통 보수정당 될 것"

"창당 전 60명 넘으면 제일 좋겠다" '호박에 줄긋기'비판 문재인에 "걱정말라" 일침

새누리당 탈당파 원내교섭단체인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빠른 시간 안에 창당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통 보수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 첫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합의추대된 주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원내대표단 구성은 1월 초 재선 (추가) 입당 상황을 보면서 최종 구성해 의총에서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개혁보수신당은 주 원내대표와 함께 이종구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원내지도부로 구성했다. 당 대표 선출은 창당 준비위에서 논의해 시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까지도 지역의 사정 때문에 많은 당원이나 지지자를 만나고 결정하겠다는 분이 10명 가까이 되고 1월 중순 쯤 정치 상황이 변하면 결정하겠다는 분도 많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창당 전까지 60명이 넘으면 제일 좋겠다"고 밝혔다 .

주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무리하면 각당 지도부에게 연락하고 찾아가겠다"며, "(새누리당에는) 비례대표 중 개혁보수신당 합류 희망자에 대한 출당 조치를 간곡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지를 알고 빨리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애초에 개혁보수신당 의원 중에는 교과서 국정화가 최선이 아니라는 입장이 많았다"며, "다만 기존 교과서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등 혼용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유통 과정에서 특정 교과서만 유통되고 다른 교과서는 유통되지 않는 잘못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야권에서 '호박에 줄긋기다'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박에 줄그어 수박을 만들려는게 아니라 종자를 바꿔 태어나는 것이니 문 전 대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주 원내대표는 "최순실 사태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이 어디있느냐, 야당도 마찬가지"라며, "여기 구성원은 국정 전횡, 무능을 비판하고 시정하려는 입장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정당을 만들자고 결의한 사람들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개혁보수신당은 따뜻한 보수, 깨끗한 보수를 지향하는 정책 정당이 될 것"이라며, "정책 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약을 만들고 여러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신당에 대한 야권의 비난에 대해 "정치의 새로운 트랜드는 만들지 못하고 마이너스 정치하겠다는 구태의 답습"이라고 비난했다.

황 의원은 "건강한 보수 세력이 만들어져야 건강한 진보세력이 있고 건강한 경쟁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저희들은 치열한 고민을 통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 정책위의장,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튿날인 28일 국립 현충원 참배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원내지도부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스1

탈당 보류 나경원…보수신당 시작부터 잡음

비박계 탈당 주도 나경원 의원 1차 탈당 동참하지 않아 뒷말 무성

그간 비박계 탈당을 주도했던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1차 탈당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나 의원은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를 비롯해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 작업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나 의원은 비박계 1차 집단탈당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보수신당이 보수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국정농단에서 드러났던 폐해를 걷어내고 시대 정신에 따른 개혁을 담아가는 방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탈당 보류 의사를 밝혔다.

보수신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나 의원은 당초 신당의 정강정책 기초 작업에 핵심 역할을 맡으려고 했으나 논의 기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특히 이날 비박계의 분당 선언문을 비롯해 신당의 정강정책에 유승민 의원의 정책 방향이 포함된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 의원은 나 의원의 이같은 반발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강정책에 대한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나 의원이 말하는 정강정책이 어떤 것인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제가 본 것이 있어야 말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나 의원이 합류하면 나 의원은 물론 정강정책을 하실 만한 개혁적인 의원님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나 의원과 통화 했는데 1월 초에 합류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과 가까운 이혜훈 의원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금요일 회의에서 정강정책·당헌당규분과위에 나경원 김세연 박형준 박재완 이주호 조전혁 위원을 선정하자는 안이 올라왔는데 이는 찬성 반대의견을 묻고 수정 보완을 하려는 가안이었다"며, "의원들끼리 논의한 바도 없었던 일로 아마 실무자들이 논의의 편의를 위해 올린 안이었을 것이다. 절대 결정된 사안이 아니었고 토론용 자료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 내부에도 좋은 사람이 많으니 우리 정책정강 당헌 당규는 우리 손으로 만들자라는 의견이 제기됐고 결과적으로 김세연 오신환 김현아 의원으로 결정됐다"며, "확정된 결론이 특정인에 의해 뒤집힌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유승민 "안철수, 손학규와도 뜻 같다면 연대 가능"

"나경원 1월 초 합류할 것… 잔류파 설득 중"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이 27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과 연대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탈당파 창당 모임인 개혁보수신당의 의원 총회 직후 "그분들(안철수, 손학규)이 우리 뜻에 동의한다면 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일반론적인 이야기였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의 분당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 접촉은 굉장히 자제해왔다"면서도 "이제부터는 필요하다면 야권 중에서도 개혁적 보수의 길에 동참하겠다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설득해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앞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내년 1월 24일로 예정된 창당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 의원은 비주류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해 온 나경원 의원이 돌연 탈당을 잠정 보류한 데 대해 "1월 초에 합류하겠다고 했고 저도 오늘 아침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추가 이탈 여부와 관련해 유 의원은 "대구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중"이라며, "추가로 탈당해 신당에 합류하는 분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지역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대구시장(권영진), 구청장, 광역기초의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경북도 마찬가지"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뉴시스

안철수 "朴 당선 도운 사람은 절대 안 돼"

비박계와 연대설 일축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운 사람은 절대 안 된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한 비박계와의 연대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대통령의 선출 기준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을 거짓말로 국민들께 홍보한 사람은 절대 다음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거듭 비박계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대선 연대나 시나리오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발언, 공개적으로 자신과의 연대 가능성을 거론한 유승민 의원과도 각을 세웠다.

외교부 '미성년 성추행' 칠레 주재 외교관 '파면'

외교부는 27일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은 현직 외교관을 파면 처분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오후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모 참사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외교부 인사국장과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한 외교부 실장급 이상 간부 7명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 등이 있다. 이중 파면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다. 당초 외교부가 '무관용' 원칙을 견지한 만큼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예상됐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그의 성추행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성비위 문제는 감경 대상에서도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만큼 선처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견 없이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시민들이 뽑은 올해를 빛낸 대구시정 BEST 10은?

'치맥페스티벌 세계화' 등 10대 우수시책 선정

대구시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부서 간 선의의 정책경쟁을 유도하고자 올해 가장 빛난 시정 성과를 거양한 우수시책을 올해 처음으로 '대구시정 BEST 10'으로 선정, 발표했다.

지난 10월부터 실·국·사업소에서 추천한 우수시책 52개 사업에 대해 대구성과평가위원, 대구경북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심도 있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20개 사업을 선정하고 시민, 언론인 등 167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치맥페스티벌 세계화' 등 10개 시책사업을 '대구시정 BEST 10'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구시정 BEST 10' 시책사업은 대구시 위상제고는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업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10개 부서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대구시정 BEST 10 선정을 계기로 시민중심의 시정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부서를 포상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유도하고 시민행복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유희 기자

대구시장 "신명나는 대구 만들 것"

시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시킨 한해

송년 기자간담회

권영진 대구시장은 2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위대한 시민정신, 그 위에서 대구의 미래를 '석전경우'의 자세로 치열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 한 해였다"고 자평하면서 새해에도 시민의 삶을 보듬고 미래를 열어 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산업을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 전환

미래형자동차 분야에서는 르노삼성, 디아이씨 등의 전기차 생산기업과 생산협약을,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과 전기차 보급협약을, 국토부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 협약을 체결해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기반을 다졌다.

물산업 분야에서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착공과 함께, 물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롯데케미칼 등 16개 물기업을 유치하고 거대 물시장인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물산업 중심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기업 113개사와 국가지원기관 15개소 등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에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 100% 청정에너지 자족도시를 향한 계획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우량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대한 희망과 함께 서민경제 보듬는 효과도

산업용 로봇분야 세계2위 야스카와 전기, 세계4위 KUKA 유치에 이어 세계7위의 현대로보틱스가 생산규모를 2배로 키워 대구로 오는 등 민선6기 들어 대기업 3개를 포함한 국내외 우량기업 139개사 총 1조6647억 원을 유치해, 민선5기 동기 대비(6819개) 29% 증가한 875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민선6기 동안 25만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는데, 그 중 여성일자리 1만2000여 개, 노인 일자리 4만6000여 개 등 취약계층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으며, 노·사·민·정 협력 최우수상에 빛나는 대구형 노사협력 관계 구축 덕분에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에 국비지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전담조직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회적경제 기업수가 2014년 대비 56% 증가한 650여개, 일자리는 45% 증가한 6200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답답하고 정체된 도시에서 역동적이고 신명나는 도시로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를 개장해 시민들이 명품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는 즐거움과 함께 간송미술관을 유치해 시민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높였다.

컬러풀대구페스티벌은 전년 대비 관람객이 178% 증가할 정도로 성장했고, 대구치맥페스티벌은 세계인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장했다.

2020년까지 초미세먼지 20% 감축으로 '숨의 도시', '신천프로젝트'로 시민들이 신천에 발을 담그고,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하는 '물의 도시', 생활공원 확대 등으로 '숲의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대구 실정에 맞는 '대구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해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했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조기정착으로 그늘진 복지 사각지대 기틀을 마련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30%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2014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스마트119 상황관제 시스템'으로 119 현장 출동대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낙후된 도심을 발전의 축으로, 내륙의 닫힌 도시에서 세계로 열린 도시로 변화

서대구 KTX 역사 건설과 병행한 도심재창조,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성공 개장과 함께 역세권 개발로 동서축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 화원연장으로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도 착수했다.

외국인 관광객 55만 명이 대구를 찾았으며, 중화권 관광객은 '중국인 대구경북 방문의 해' 등으로 51%가 증가한 30만 명이 대구를 방문했고, 비수도권 최초로 의료관광객이 2만 명이 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해외 12개 노선 확대 등으로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250만 명을 돌파해 개항 55년 만에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고, 국제선 이용객은 2013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이용객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시민중심 시정혁신으로 소통과 협치의 시정 추진

권영진 시장은 2016년을 청년대구 건설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청년이 모이고 꿈을 이루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대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네트워크 구성, 전국 최초로 청년센터 설립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청년일자리는 1만1000여 개로 당초 목표 대비 112%, 청년창업은 310개사로 당초 목표 대비 129% 초과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현장소통시장실을 통해 현장시정을 추진했으며,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소통과 협업의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민원·제안 통합시스템 '두드리소'를 고도화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더욱 확대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환경청 'AI 감염원 큰고니 이동 막기 위해 먹이 공급'

전국 고병원성 폐사체 9마리 중 6마리가 큰고니, AI 가장 취약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2일 대구 동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큰고니의 서식지 이탈을 막기 위해 먹이공급 활동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지난 26일까지 전국의 폐사체 중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사례는 총 9건으로 이중 큰고니가 6마리를 차지해 AI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달을 기준으로 대구경북의 주요 야생조류 서식지인 금호강(경산 하양-대구 동구)과 낙동강(해평습지 일원)에 각각 큰고니 110마리와 230마리가 관찰된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지방환경청은 오는 28일부터 매주 정기적으로 AI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큰고니 등 야생조류의 이동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고구마, 볍씨, 겉보리를 각 서식지별로 160㎏씩 공급할 방침이다. 먹이공급 활동에 동원되는 인원은 AI 예방백신을 접종한 뒤 방역장비를 갖추고 참여한다. 이 밖에도 대구 동구와 경북 경산, 구미는 각 서식지역에 대해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와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이상하 기자

대구시, AI 차단 위해 선제적 대응에 초점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 가금류, 전량 수매 및 도태 결정

대구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의 조기종식과 근원적 차단책의 일환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의 닭과 오리 등에 대한 전량 수매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26일 긴급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AI의 조기종식과 차단방역의 일환으로 대구시 소재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과 오리 등을 일제히 수매해 도태하기로 결정해 선제적 방역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의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가는 349농가 6567수로 대구시는 긴급 수매비용(예비비 2억 원)을 확보해 각 구·군에 배정할 계획이며, 소규모 사육농가 중 100수 미만의 사육 농가와 방역 수준이 낮아 AI발생 위험도가 높은 농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3일 동구 신서동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큰고니 폐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결과 H5N6형 AI가 검출됨에 따라 발견지점으로부터 10km내에 방역대를 설정하고 가금류 사육농가(52호 3096수)에 대해는 이동제한 및 방역강화 조치를 단행했다.

대구시 최삼룡 창조경제본부장은 "대구시 관내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AI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축산 농가에서는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내·외부 소독과 축사 주위 생석회 도포 등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고, 아울러 이번 대구시의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 일제 수매 결정에도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하 기자

제50 보병사단서 '작은 입영 문화제' 열어

올해 마지막 입영문화제 성료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 최철준)은 27일(화) 제50보병사단에서 입영장정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마지막 '작은 입영문화제'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군복 입기 체험, 사랑의 편지쓰기, 자유발언대 등의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가족과 연인에게 사랑과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철준 청장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민·관·군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작은 입영문화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며, 입영장정들이 병역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최유희 기자

중구 남구 동구 수성 북구 서구 달서 달성

임병헌 남구청장은 28일 오후 캠프워커 및 캠프핸리 지역활동처에서 열리는 '제92기 글로벌 앞산 캠프 수료식'에 참석한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28일 오전 대구국제공항에서 개최되는 '대구국제공항 항공여객 연 250만 명 달성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28일 오전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도시국장 퇴임식'에 참석한다.

남구,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위탁 협약 체결

남구청은 26일 오후 구청장실에서 '남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남구청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재)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대구경북지부(대표 전재혁)와 내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 협약 체결했다. 박흥규 기자

달서구, 2016 의료급여사업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영예

달서구가 대구시 '2016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의료급여사업 평가'는 대구시에서 의료급여 재정절감 및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 및 관계자 등을 발굴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추진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해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달서구는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등으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우리팀이 최고야' 등의 타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일수 및 의료비를 절감,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최영우 기자

북구청, 기초생활보장분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기초생활보장분야 정부합동평가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북구청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6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정부합동평가(2015년 실적)'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및 부상을 수상 한다.

이번 평가는 2015년 한 해 동안 기초생활보장분야 중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지자체 확인조사 기간내 완수률 등 3개 분야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국 25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해 표창하게 됐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북구청이 선정됐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 모두가 더 열심히 노력해 내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균 기자

서구, '교통사고 30% 줄이기' 최우수상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8000만 원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개선 투자

서구청은 대구시 주관 2016년 하반기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Vision330) 구·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8000만 원을 받는다.

서구청은 △매월 11일 대중교통의 날(탑시Day) 범구민운동으로 추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감삼공원 서편, 달성고교·서부초교 서·북편 인도신설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정책 추진 △이면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구비 9000만 원을 투입한 교차로알림이 설치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을 추진해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범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해 상, 하반기로 나눠 △교통안전 시설개설 실적 △홍보 및 캠페인실적 △교통안전 교육실적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교통관련 예산확보실적 등 8개 항목 100점으로 전문가 및 외부인사 7-9명으로 구성해 평가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차량과 보행자가 무질서하게 통행하는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도를 신설하는 등 보행자중심 교통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거리에 물든 벽화, 경제를 되살리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 화원전통시장 등에 벽화 조성

달성군은 출사가나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화원전통시장과 동곡할매칼국수 거리에 벽화를 조성했다. 이번 벽화조성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신의 물방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화원전통시장에는 지형지물을 활용해 시장 구석구석에 3D 벽화 30여 점을 그렸다. 화원시장 입구부터 시장 아케이드건물까지의 약 250m의 거리에 여러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해 달성군의 토마토축제와 100대 피아노 공연, 사문진의 유래 등 달성군에 얽힌 이야기들을 벽화로 풀어냈다.

또한, 부모와 시장을 찾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 우체통 위에는 엽서를 물고 있는 비둘기를 더하고 인도 볼라드(기둥)를 피노키오 코로 묘사해 길거리를 거닐며 찾는 재미까지 더했다.

동곡할매칼국수 거리에는 주말 나들이객과 식사대기 손님들이 지루하지 않게 칼국수와 1950년대 전경을 소재로 벽화를 조성했다. 나무밀대로 밀가루반죽을 미는 장면, 큰 가마솥에 땔감을 때어 부글부글 국수를 끓이는 장면 등 국수 요리 과정을 묘사했다.

또 담장의 전선을 이용해 연날리기 하는 모습이나 오줌싸개가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니는 모습 등 1950년대 전경을 묘사해 재미를 더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의 증가는 곧 지역경제의 활성을 의미한다"며, "대형 관광지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상권들을 관광 차원의 연결 고리를 통해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2016년 1월 1일 오봉산 침산정서 열린 새해 해맞이 행사 모습

북구, 오봉산 정상서 해맞이 행사 개최

내년 1월 1일 오봉산 침산정서 가족건강과 소원성위 기원

북구청과 북구새마을회는 내년 1월 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봉산 정상 침산정에서 '2017 새해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2017 오봉산 해맞이 행사'는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45만 북구 구민의 안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고, 북구가 대구의 중추적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다짐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서거정이 꼽은 대구10경인 오봉산 정상 침산정 앞에서 열리며, 행사에는 가족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빌고 정유년의 기운을 가득 담으려는 3000여 북구 주민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는 오전 7시 10분, 식전행사로 해맞이 행사를 알리고 새해를 여는 공연이 열릴예정이며, 이어 배광식 북구청장과 하병문 구의회 의장, 국회의원, 백운일 새마을회장 등이 신년 축하 메시지를 구민을 대표해 관객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7시 35분경 일출 시간에 맞춰 새해를 맞기 위한 카운트 다운, 각자의 소망을 담아 띄우는 소망풍선 띄우기, 우렁찬 해오름 함성, 행복기원 만세삼창 등이 이어지고 행사의 피날레로 흥겨운 뮤지컬 갈라쇼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북구새마을회에서는 행사장을 찾는 구민과 시민들을 위해 떡국 4000인분과 전통차 등을 준비 할 예정이며, 가족단위 관람객이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 한해의 소원을 기원할 수 있는 소원지, 그리고 2017년에 이루고 싶은 다짐을 적어 1년 뒤 받아볼 수 있는 소망우체통(느린엽서)이 마련돼 있다. 김창균 기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서문시장 피해 성금 기탁

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순영 중구청장)는 26일 오전 대한노인회 중구지회(회장 이영길)과 경로당 회원일행이 서문시장 내 중구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해 피해 상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46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진희 기자

달성군, 협업포인트 제도 본격 시행

정부3.0 시대 일하는 방식 개선 칸막이 행정서 협업행정으로

달성군은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 및 부서를 찾아내 우대하고, 유용한 정보·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난 8월부터 '협업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 실정에 맞게 도입하면서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도 이미 마련했다.

협업포인트는 공무원이 기관 내 다른 부서, 다른 기관의 공무원과 업무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지식·정보·장비 등을 공유하는 등 협업한 경우, 감사메시지와 함께 주고받는 포인트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일하는 방식 개선, 예산절감, 대외협업, 정부3.0 시책 추진 등에 기여한 직원에게 특별 협업포인트도 부여할 예정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직원 및 부서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칸막이 없이 소통하면서 업무효율성을 높여, 부서 이기주의를 없애고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지난 5일 2016년 협업 우수부서(기획감사실), 우수 직원(배서윤, 방은주, 이정은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격려했다. 조여은 기자

안전 입간판 물의 빚은 건설사 규탄 기자회견 대구시민단체가 27일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서 노동자의 가정을 농락하는 듯한 안전 입간판으로 물의를 빚은 건설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대구도 뚫려… 고병원성 AI '확진'

동구 아파트단지 발견된 큰고니 고병원성 AI 확진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병철)은 지난 22일 대구 동구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된 큰고니 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이에 앞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지난 12일 경북 경산 하양 금호강변에서 발견된 큰고니 폐사체에서 AI가 발견된 뒤 16일 고병원성인 것으로 판정됐다.

이후 영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지 11일 만에 대구 동구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폐사체에서 2번째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대구환경청과 경산, 동구는 방역 강화와 함께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먹이공급 등 AI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대구 동구에서 발견된 큰고니가 서식지가 아닌 주거지에서 폐사하자 AI에 취약한 오리류의 서식지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28일부터 고구마와 볍씨, 겉보리를 각 서식지별로 160㎏씩 정기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남주형 기자

개통 이틀만에 상주-영덕고속道 3중 추돌사고

4명 중·경상… 입원 치료 중

27일 오전 11시 40분쯤 영덕군 강구면 원직리 상주-영덕고속도로 상주에서 영덕방향 190㎞ 지점에서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지 모 씨(80) 등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고 지점 편도2차선 도로 2차로에서 달리던 김 모 씨(77)의 승용차가 차량정체로 정차중인 정 모 씨(46)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정씨의 승용차와 앞에 서있던 김 모 씨(54)의 승용차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제일 뒷 차인 김 씨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지 씨와 이 모 씨(76) 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김 모 씨(79)와 최 모 씨(71·여) 등 2명이 경상을 입어 안동병원과 안동성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3일 개통식을 가진 상주-영덕고속도로는 안전점검 등의 이유로 개통 시기가 연기돼 지난 26일 0시 개통됐으며, 개통날에도 영덕나들목에서 하행방향의 하이패스가 오작동을 일으켜 교통정체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건 기자

경북도, AI유입 차단위해 '연말연시 행사 모두 취소'

매년 시행하던 경북대종 타종 행사 등 전격 취소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북도 내 유입 차단을 위해 경북도가 매년 시행해 오던 경북대종 타종 행사 등 연말연시 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연말연시 행사 취소는 도내 AI 차단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결정됐다.

경북대종 타종 행사는 매년 12월 31일 영덕 삼사해상공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이다.

이 행사는 해마다 전국의 관광객을 비롯한 도민, 학생, 기관단체장 등 10만 여명의 인파가 몰리는 지역이 새해맞이 대표적 행사이다.

도는 우리나라의 새해 일출명소인 포항 호미곶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민족 해맞이 축전 행사도 취소했다.

도가 이처럼 연말연시 유명 행사를 전격 취소한 것은 최근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정부에서 AI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킴에 따라 결정됐다.

또, 도내 양계 농가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AI 청정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도는 앞으로 연말연시에 많은 인파가 모이는 송년 행사 및 해맞이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AI가 경북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행사를 모두 취소했다"며, "도는 AI 유입 차단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안동 길안천 취수시설, 하류지역 유량 감소에 영향

한국수자원공사가 안동 길안천에 설치한 취수시설이 하류지역의 유량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안동시가 국립 한경대 조사팀에 의뢰한 '성덕다목적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 검증' 용역 결과 취수시설이 길안천 하류지역의 물 부족현상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팀은 "취수가 시작되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하류 30㎞ 지점에서 생활·공업용수를 취수하는 것 보다 성덕댐에서 하천유지 용수만 방류할 때 하류 하천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길안천에 들어선 취수시설은 성덕댐으로 확보한 용수 외에도 추가로 물을 취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성덕댐 용수는 댐 내에서 취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시는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한국수자원공사에 전달한 뒤 대응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162일째 길안천 취수 반대 피킷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재갑 안동시의원은 "용역 결과가 나온 만큼 안동시장은 즉각 후속 조치를 취하고,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온 국회의원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영양댐 건설 취소와 관련한 국토부의 권고안을 보면 경상도 동남부지역의 용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나와있다"면서 "이번 결과는 길안천을 명품 생태하천으로 가꿔 나가는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길안천의 물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영천댐으로 흘려보내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 동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것이다.

이 공사는 지난해 12월 권영세 안동시장이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올해 6월 수자원공사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청구를 경북도가 받아들이면서 재개돼 최근 설치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구 기자

사건·사고

주차 차량 100대 털이범 출소하자 또 71대 털어

김천경찰서는 27일 주택의 마당에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 씨(47)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김천지역의 농촌주택 마당에 주차된 차량만 노려 71차례에 걸쳐 현금 등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농촌지역 마당에 주차된 차량 대부분은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지난해 같은 수법으로 차량 100여 대를 털어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지난 4월 출소하자마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이은진 기자

성서경찰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40대 여성 검거

대구 성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자금을 인출하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김 모(4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6분께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무역회사인데 돈을 찾아주면 수수료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달서구 용산동의 한 은행에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영우 기자

대구 남구 고양이카페서 화재…20여분 만에 진화

27일 오전 5시 25분께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고양이카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20분여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73㎡가 타 18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박흥규 기자

북구 팔달교고가도로 인근 사고…2명 경상

26일 오후 6시 10분께 대구 북구 팔달교고가도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A(54) 씨가 차선변경을 하던 중 옆 차량을 들이박고 중앙선을 넘어가 또 다른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3대와 A 씨의 차량 일부가 파손됐고, 2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창균 기자

빗길 운전 외제차 4중 추돌

26일 오후 2시 43분께 대구 달서구 월암동 중소기업청 사거리에서 조 모(64) 씨가 운전하던 닛산승용차가 유천교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차돼 있던 차량 4대와 조 씨의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최영우 기자

대구대, 제1회 뇌기증 희망나눔 어워드 '최우수'

코리아 브래인 뱅크 제작·출품

대구대학교는 한국뇌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뇌 기증 희망나눔 어워드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뇌연구원 소속 한국뇌은행이 사후 뇌 기증의 필요성과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포스터와 동영상 등 두 가지 분야로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총 84개 작품이 출품됐다.

대상(1개)과 최우수상(2개), 우수상(4개), 장려상(4개) 등 총 11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11개의 공모전 수상작들은 리플릿, 포스터,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서울시 지하철을 비롯해 내년 1월 문을 열 한국뇌은행네트워크(Korea Brain Bank Network, KBBN)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하고 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된다.

특히, 대구대는 뇌은행과 뇌 기증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리는 '코리아 브래인 뱅크(Korea Brain Bank)'라는 1분 30초 가량의 동영상을 제작·출품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김정환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과장은 "대구대는 실력 있는 디자인 인재를 길러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안동과학대, 中 광동성·후남성 교육기관과 국제교육교류 협약

안동과학대학교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 광동성 및 후남성을 방문해 관련 교육기관과 국제교육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국제교육교류협약 체결은 총 3곳으로, 중국 광동성의 광동여자직업기술대학교와 후남의 후남의약대학교, 후남여자대학교 등이다.

특히, 후남여자대학교와는 교환학생 교류협약을 체결해, 2017학년도에는 우리학교와 후남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서로의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유학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체결한 후남의약대학교는 국립의학대학으로, 일반대학으로는 힘든 매우 많은 양의 해부학 전시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위학 연구 분야교류 진행시, 의학보건계열 학생들의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국제교류 협약은 광동성 광저우제81 고등학교 현지 학생들에게 안동과학대학교를 홍보해, 글로벌 인재 확보에 초석을 다졌다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

김용구 기자

대구폴리텍대 산업설비자동화과 우수학과 선정

정부서 7억 원 예산 지원 받아 최첨단교육훈련시설 확보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는 이 대학 산업설비자동화과가 미래신성장동력학과 우수학과로 선정돼 이사장 포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캠퍼스는 2015년 미래신성장동력 학과 개편 전국 공모에 응모해 산업설비자동화과가 선정됐다.

이에 정부로부터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최첨단 교육훈련시설을 확보했다.

법인측은 지난 6월부터 개편에 선정된 학과를 상대로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했고, 대구캠퍼스 산업설비자동화과가 우수학과로 선정됐다.

주요평가 내용은 핵심성과(입학, 양성, 취업률) 달성, 개편학과 교과개편(NCS운영) 노력 및 성과창출, 시설·장비 활용 및 운영 실태 등이다.

산업설비자동화과 학과장 김옥환 교수는 "산업설비자동화과는 매년 80%의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으며, 최첨단 교육시설을 활용해 현장실무중심 교육을 실시, 졸업 후 바로 현장에서 환영받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캠퍼스 정시모집은 2017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다. 모집학과는 산업설비자동화과 등 7개 학과이며 총 70명을 모집한다.

김진희 기자

대구과학대, 글로벌 인재양성 '박차'

외국어능력과 글로벌감각 향상, 해외문화탐방 등

대구과학대학교는 외국어능력과 글로벌감각 향상, 해외문화탐방 등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대학측은 재학생 92명을 선발, 말레이시아와 영국, 일본, 싱가포르에 각 4주간의 일정으로 파견한다.

먼저, 말레이시아로 지난 26일 출국한 연수생 37명은 말레이시아 세기대학에서 다음달 26일까지 4주간 영어 집중교육을 받게된다.

영국 워릭셔 대학에서 영어연수를 받게 될 30명의 학생들은 내년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의 프로그램을 소화하게 된다.

또 일본 덴파학원 산하의 아이치비즈니스 전문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15명은 내년 1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 일본 일정을 갖는다.

특히, 내년 1월 10일부터 2월 5일까지 4주간 일정으로 떠나는 간호학과 재학생 10명은 싱가포르 래플즈병원에서 외국 집중연수와 병원실습과정을 동시에 이수할 예정이다.

대구과학대는 연수생들의 해외연수비와 현지 체제비 등을 지원한다.

말레이시아 어학연수단의 이은하(간호학과 2학년) 씨는 "해외연수 일정을 알차게 보내 외국어 능력 향상과 더불어 해외 문화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혀 돌아오겠다"며, "4주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 준 총장은 "어학프로그램 또는 특별시험을 통해 성적우수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외국어 능력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해외문화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경쟁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과 호흡하며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어 무료 특강 개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겨울방학을 맞아 티벳어 무료 특강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티벳어 특강은 오는 1월4일부터 2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무료로 진행된다.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티벳 불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한다.

이번 '우리말 교재로 배우는 티벳어 강좌'는 동국대 티벳대장경역경원 양승규 연구원이 초급 티벳어와 중급티벳어로 나눠 강의한다.

신청 및 문의는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역경원(054-770-2893)으로 하면 된다.

윤용찬 기자

동국대 경주, 미국취업 마케팅 전문가 2기 교육 시작

K-Move스쿨 미국취업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2기 발대식·간담회 가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글로벌융합연구소는 지난 27일 교내 진흥관 201호에서 'K-Move스쿨 미국취업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2기 발대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K-Move 스쿨 미국취업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직무교육과 영어 집중교육 등을 실시해 해외 우량기업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산업체 수요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글로벌융합연구소는 지난해 1기 'K-Move 스쿨 미국취업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했고, 올해 2기 양성과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K-Move스쿨 미국취업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2기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학, 국제통상학, 관광레저경영학, 응용통계학,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 정보경영학, 외식경영학, 영어영문학과 재학생 총 16명이 선발됐다.

참가 학생들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6개월간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가 되기 위한 직무 및 어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게 된다. 교육은 기업요구에 맞춘 수요맞춤형 전공교육과 원어민 교수가 지도하는 영어 회화, 글로벌리더십 등 미국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발대식에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동국대 컴퓨터공학과 이태경 교수, 조영석 교수, 글로벌경제통상학부 김동헌 교수, 영어영문학과 박종언 교수, 애런 스티븐스, 찰스 롭 원어민 교수 등 11명의 교수들이 참석해 학생들과 함께 발대식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사업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이영찬 동국대 경주캠퍼스 글로벌융합연구소장은 "우리 대학은 미국취업 양성과정 1기 연수생 중 14명이 미국 취업에 성공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2기 과정도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미국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찬 소장은 "K-Move스쿨 미국취업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0월 뉴욕한인경제인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해 현지 우수 취업처를 발굴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취업과정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통해 취업률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용찬 기자

경북교육감, 현장 교사의 목소리 듣다

교육감과 교원의 공감대화

경북교육청은 27일 더케이 호텔 경주에서 '교육감과 교원의 공감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감과 교원의 공감대화는 2016 경북교육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교육감이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2017 경북교육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대화의 장으로서 경북 각 시·군의 교사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유치원 교사들은 단설 유치원 설립과 학급당 정원 하향 조정 등에 대한 건의를 했으며, 초, 중등 교원들은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방안, 교권 보호 방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방과후학교 운영 방안, 수석교사 선발 및 연수 등 교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이야기 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은 교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사항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및 해결 방안 등을 자세히 제시해 현장 교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계기가 됐다.

김용구 기자

대구한의대학교, 새해 해맞이 행사 취소 결정

대구한의대학교와 경산시, 경산문화원은 대구한의대학교 한학촌에서 개최하기로 한 2017 해맞이 행사를 취소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한의대와 경산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독감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해맞이 행사를 취소키로 했다.

지역에서 새로운 해맞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대구한의대 해맞이는 풍물놀이, 소망편지쓰기, 소망풍선 날리기, 죽궁시연, 한방차 시음, 떡국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가 실시된다.

지난해 행사에는 5000여 명의 시민과 관람객이 찾아 새해 소망과 해맞이를 즐겼다.

김진희 기자

수성대, 산업맞춤형 연계교육 산학협약 체결

대구관광고-수성대-삼송BNC 연계 맞춤형 교육 실시

수성대학교와 대구의 대표 제빵브랜드인 ㈜삼송BNC와 대구관광고는 27일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산업맞춤형 연계교육 산학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대구관광고-수성대-삼송BNC를 연계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부터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함께 하는 한편 대구관광고와 수성대 제과제빵커피과에 10명 규모의 삼송빵집반을 운영한다.

또 이들 학생들은 삼송BNC에서 현장실습 및 취업 등에 우선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삼송BNC는 신규 제품 연구 개발을 위해 대구관광고-수성대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수성대 등은 협약식을 마친 뒤 대표이사 박성욱 셰프 등 삼송BNC 대표 셰프 3명과 수성대 제과제빵과 및 대구관광고 학생 20명은 삼송빵집의 대표 브랜드인 이른바 '마약빵(옥수수빵)' 등 빵 10여 종을 이 회사 대표 셰프들의 제작과정 시범을 거친 뒤 직접 만들었다.

특히, 이날 만든 1000만 원 상당의 빵은 학생들과 삼송빵집 임직원들이 최근 큰 화재로 피해를 본 서문시장 4지구 상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부는 서문시장에서 빵공장을 운영하다가 지난 73년 공장화재로 큰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삼송BNC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삼송빵집 박성욱 대표이사는 "산업맞춤 연계교육 협약을 맺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뜻깊은 일이지만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 행사를 가진 게 더욱 의미 있는 것 같다"며 "수성대와 대구관광고와 손잡고 앞으로 실질적인 산학협약은 물론 지역 사회를 위한 공헌 활동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경북대, 2017학년도 정시모집 본격 시작

1674명 선발,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이월인원으로 인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경북대학교는 2017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4914명 중 34.1%인 1674명을 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모집인원인 1951명보다 277명이 줄어든 것으로, 수시모집 선발인원 확대에 따른 결과다.

정시모집 인원은 수시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이월인원으로 인해 다소 늘어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4일 오후 6시까지다.

경북대학교 누리집 또는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전 모집단위가 '가'군 또는 '나'군의 단일군으로 모집한다.

학생부(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으며, 일반학과는 '가'군, '나'군 모두 수능(100%)으로, 예·체능계열 학과는 수능성적과 실기성적으로 선발한다.

예능계열 학과의 경우 학과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의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을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해야 한다.

수능성적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표준점수(국어, 수학, 영어영역)와 변환표준점수(탐구영역)를 활용한다.

영어의 경우 반영비율이 30-40%로, 타 영역 대비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연계열 지원자 중 일부학과의 경우 수학나형 응시자는 15%를 감산하며, 한국사는 등급별로 차등 가점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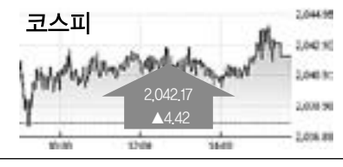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이 모집단위별로 다르므로 지원하기 전에 자신이 지원할 모집단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영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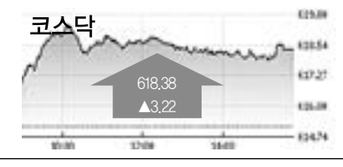
모집단위의 경우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사업과 관련해 컴퓨터학부 내에 글로벌소프트웨어융합전공이 신설됐으며, 예술대학 시각정보디자인학과는 올해부터 디자인학과로 명칭을 변경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정시모집 합격자는 내년 1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단, 실기·면접 고사 실시전형은 내년 1월 26일 발표한다.

합격자 등록은 내년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다. 충원 합격자는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선발한다.

김진희 기자





외국계 합작기업 몰려온다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한미합작 외투기업 2곳 유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오전 시청 별관에서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 도건우 청장, 태산하이테크㈜ 권성진 대표, 대경로보텍㈜ 이정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크노폴리스 경제자유구역에 전기자전거와 로봇 분야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는 투자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총 8개 사업지구 중 테크노폴리스지구에만 10번째 외투기업 유치를 성사시켰고, 청 전체로는 7개 국가로부터 20개의 외투기업 유치 성과를 거두게 됐으며, 금년 들어 국내 73개 기업으로부터도 5602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화에 적잖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건우 청장 취임 후 최근 2년 여 동안 지역에서 성장해 온 7개 기업이 해외 투자자들과 합작기업을 만들어 경제자유구역에 둥지를 틀게 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구 지정 후 수 년 동안 방치돼 해제 위기에 몰렸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까지 올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 개발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중 개발사업 진도가 가장 빠른 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테크노폴리스지구에 입주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미합작기업인 태산하이테크㈜는 2만3084m² 부지에 미국 측 파트너가 투자하는 1100만 달러를 포함해 206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전기자전거, 전기손수레 등 전기 이동수단 제조 및 연구시설을 건립할 계획인데, 생산 완제품 대부분을 국내굴지 대기업과의 기술 협력체계를 통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납품 등 외국 기업과의 공동 생산·판매망 구축을 통한 해외 수출로 판매함으로써, 2019년까지 연간 매출 300억 원, 고용창출 150명을 목표로 미래형 전기 운송수단 산업을 주도하는 업체로 거듭나게 됐다.

역시 한미합작으로 설립된 대경로보텍㈜은 그동안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온 현대로보틱스가 내년 초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에 입주함에 따라 같은 지구 내 투자를 결정하고, 300만 달러의 외투자본을 포함한 총 70억 원을 투자해 2019년 매출 250억 원, 신규고용 100명의 중견 로봇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도건우 청장은 "국내외 기업들의 건강한 생태계를 마련해 세계를 향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에 지역의 주력산업이자 미래형 융복합산업인 전기차, 로봇 분야의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는 것은 대구시가 역점을 두고 육성하는 미래산업의 앞날이 밝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기업 유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수성의료지구와 경산지식산업지구에도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미래 창조형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해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일래 기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태산하이테크㈜, MOU 체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대경로보텍㈜, MOU 체결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대구 만들기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노사화합의 한마당' 행사 개최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의장 권영진 대구시장)는 28일 오후 달서구 호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김연창 경제부시장, 김위상 한국노총대구본부의장, 박상희 대구경영자총협회장, 노사민정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대구 만들기' 확산을 위한 '노사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도시 대구' 동영상 상영, 모범근로자 표창(9명), 노사민정 대표자 인사말씀, 노사화합 및 협력 행사 순으로 진행된다.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도시 대구 만들기'를 위한 지역 노사의 참여 공감대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노사상생 협력 분위기를 기반으로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도시 대구 만들기'에 온 정성을 다해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외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하고자 노사화합의 한마당을 개최하게 됐다.

앞으로도 대구 노사민정은 지속적으로 상생협력의 선진적 노사관계 정착을 추진하고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도시 대구 만들기'에 앞장 설 계획이다.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근로자 및 사용자대표, 지역 언론사와 시민대표, 고용·노동·경제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 노사안정 및 협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이다.

조여은 기자

"소상공인 지원정책 실효성 높여야"

소상공인연합회, '2016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등 실태조사' 공개

소상공인연합회가 2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2016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등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30여 개의 미디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지난 10월 6일부터 지난달 25일 까지 약 2개월 간, 3000개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6년 소상공인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한 체감도, 대기업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영업활동에 있어 정부의 소상공인에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체감이 11.1%이며, 비체감이 48.1%로, 비체감률이 체감률 보다 4배 정도 높게 나타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 영업활동에 있어 정부의 소상공인에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83.3%), 건설업(66.2%)에서 높게 나타났다.

월 매출별로 정부의 소상공인에 지원제도나 정책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5000-1억 원 미만(78.1%)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란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금지원 확대(35.0%)이며, 차 순위로 세제지원(25.5%), 협회/상인회 등 단체 활동 지원(14.7%),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14.0%) 순으로 나타나 자금 및 세제지원 정책과 단체 등에 간접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업 가운데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는 기업은 KB국민(27.0%)이며, 다음으로 NH농협(26.0%), 신한(17.4%), 삼성(14.6%)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기업 가운데 신용거래 정책과 관련 문제가 많았던 기업으로는 롯데 및 삼성(각 21.8%, 215.%)을 꼽고 있으며, KB국민(17.0%), NH농협(12.7%) 순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첨복재단, 동물 의료제품 개발 박차 가한다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 대경권 최초로 식약처 인증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 이후 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센터장 김충용)가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증하는 '우수동물실험시설(KELAF)'에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우수동물실험시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동물실험시설 인증제도로서, 적정 시설과 인력, 운영상태 등을 평가한 후 지정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식약처의 '우수동물실험시설' 인증을 받은 곳은 첨복재단이 처음이다.

'우수동물실험시설'은 적절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운영상태가 우수한 동물실험시설에만 지정되는 제도로, 식약처의 엄격한 실사를 통과해야 한다. 실험동물을 위한 실험실은 깨끗하고, 조용하고 적정온도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를 포함한 9개 기관이 식약처 인증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돼 있다. 이들 기관 중 대경권에 위치한 우수동물실험시설은 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가 유일하다.

우수동물실험시설에 지정되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인력적인 부분에서 관리자 자격을 갖춘 수의사와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 또는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각각 1인 이상 둬야한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사무실, 검역실, 수술실, 부검실, 세정실, 창고, 샤워실, 사육실, 실험실, 폐기물보관실 등을 따로 갖춰야 한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점검, 사육환경 관리,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및 수의학적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표준작업서(SOP)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는 2014년에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 마우스(mouse)와 랫드(rat)의 소동물을 비롯해 토끼, 개, 돼지의 중동물을 사육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영장류도 도입할 예정이다. 생체영상분석, 첨단융합미세수술, 맞춤형 동물모델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암, 대사성질환, 뇌신경 질환 등에 관한 맞춤형 동물시험시스템을 구축해 비임상시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김충용 실험동물센터장은 "우수동물실험시설로 지정되면서 산·한·연·관·병과의 협력 활성화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의료제품개발을 위한 전임상평가 분야의 글로벌 파트너가 되는 국가실험동물센터로 성장할 것이며, 범부처로 활용될 수 있는 글로벌 표준 잣대로 도약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이 첨복재단이 글로벌 의료산업의 新중심으로 나아가는데 큰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는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이 됨으로써 대경권 동물실험에 한 단계 더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다.

조일래 기자

설 상품권 한정 패키지 나왔어요~

롯데百 대구점, 선물용 상품권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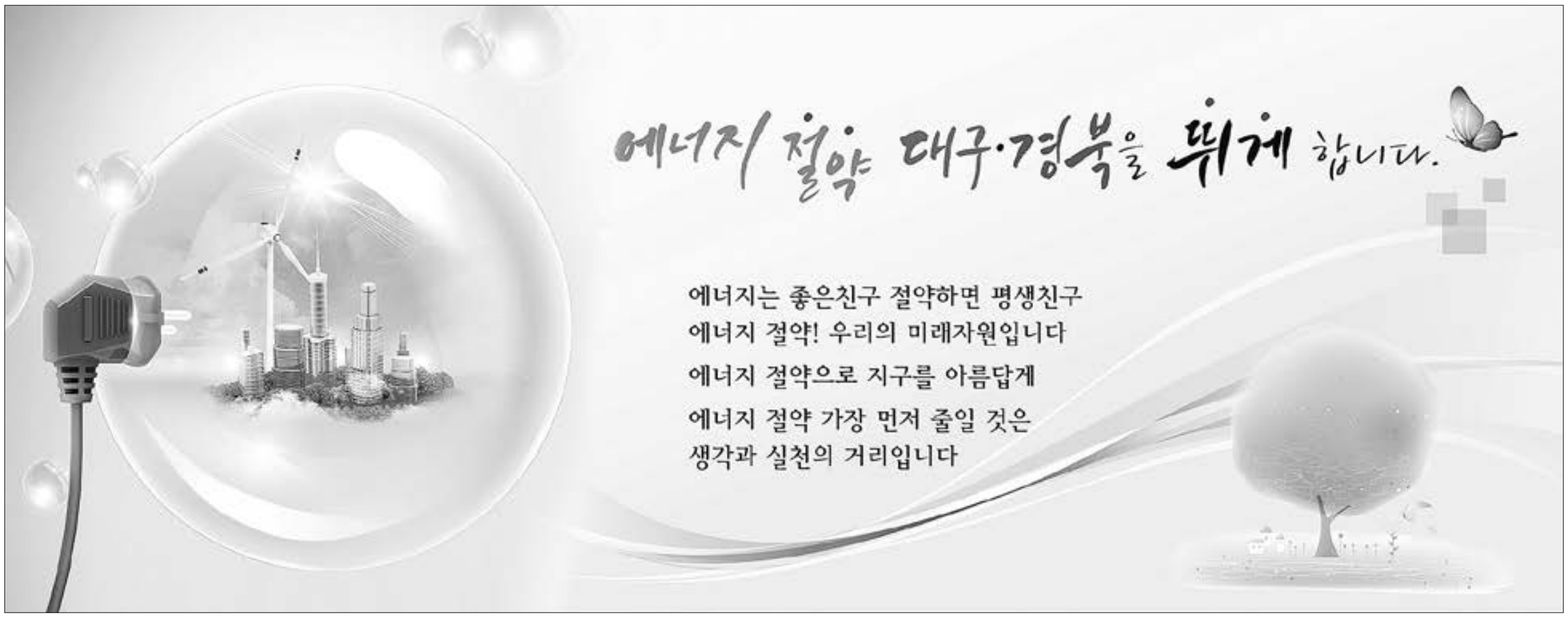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10층 상품권데스크에서 선물용 설 상품권 패키지를 소진 시까지 한정 판매한다.

전국의 롯데백화점 및 여타 롯데 계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롯데상품권은 활용도가 높아 명절 선물로도 선호도가 높다.

상품권 패키지는 모두 3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의 4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를 구매 할 경우 각 3만 원, 20만 원, 75만 원, 150만 원의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또한, 롯데, BC, 신한, KB국민, 농협, 하나카드 개인 체크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월 100만 원 한도 내에 구매 할 수 있다.

이상하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포항시체육회 제3차 이사회를 주재하고 상정 안건을 심의·승인한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28일 오전 알천홀에서 열리는'2016 하반기 명예?정년 퇴임 및 공로연수 이임식'에 참석한다.

경주시 평생학습, 경북도 정상에 우뚝 서다

2016년 경북도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 대상 수상

경주시가 26일 경주현대호텔에서 열린 '2016년 경북도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군 교육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업무에 대한 사업방향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자유학기제의 전면시행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경주시의 제4회 경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결과보고와 포항시의 희망창조학교에 대한 우수사례발표가 이어졌다.

평생학습분야 우수 시군 시상에서 대상은 경주시가, 최우수상은 경산시, 예천군, 우수상은 포항시와 의성군이 수상했다.

경주시는 1334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관인 신라국학이 설립된 교육도시로서, 2008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과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자체 최초로 평생교육사의 일반직 채용,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출범하는 등 평생교육 기반을 단단히 구축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 경로당을 지정 운영하고, 최고의 명사초청 화백포럼(월2회),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아카데미(월1) 등 다양한 지역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성인문해교육,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등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정숙자 평생학습센터 소장은 "지속적인 프로그램개발과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평생학습으로 시민들의 행복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포항시, 고병원성 AI 방역에 강력대처 나선다

형산강변 야생조류 분변,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판정 긴급 읍면장 회의소집 및 야생조류 출몰지 소독 강화

포항시와 경주시 경계지점인 강동면 국당리의 형산강변에서 지난 19일 채취한 야생조류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판정이 나옴에 따라 포항시는 27일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시 형산강변은 청둥오리, 고니 등의 야생철새가 출몰하는 지역으로 이번에 야생조류 분변이 채취된 지역 10km 이내에는 49농가에서 939마리의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가 있을뿐 대형 가금류 사육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전체 농가대상를 대상으로 예찰활동과 기동방역반을 동원, 매일 소독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발생지에 일반시민이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띠를 설치하고 '출입금지 홍보현수막'을 게첨했으며, 소독전용차량 배치 등 경북 미발생지역 고수를 위해 전 행정력 동원에 강력 대처하고 있다.

특히, 27일 긴급 소집된 읍면장 회의에서는 공식적인 해맞이 축전은 취소되었지만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이해 농장 진입로에 대한 생석회 살포, 현수막 설치, 소독약품 배부, 자율방제단 운영 등 취약농장에 대한 지원과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포항시에서는 집단사육단지인 흥해 성곡농장 입구에는 '계란 간이집하장'을 설치해 각 농장별로 출입하고 있는 계란수거차량의 출입을 차단하는 등 최소한의 차량이 출입하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우리지역의 형산강에는 많은 야생철새가 찾아와 AI의 위험성이 높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

제로 AI 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예찰활동과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했다.

전세훈 기자

경주시, 신라대종 제야의 종 타종식 취소…AI 예방 차원

읍면동 자체 해맞이, 해넘이 행사 취소, AI 청정지역 사수 올인

경주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예방을 위해 연말 계획 중이던 신라대종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와 언론사 주관 문무대왕릉 해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신년해룡축제 등 관내 해맞이, 해넘이 행사를 26일 전격 취소했다.

24일 경남 양산시 상북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AI의심신고가 26일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경남도도 전 지역에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해맞이, 해넘이 행사가 취소되고 있다.

시는 가까운 양산지역에서 AI 발생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거점소독소 3곳(경주 IC, 가축시장, 축협사료사업소)과 통제초소 3곳(희망농원, 건천 IC, 내남 월산)의 24시간 운영 등 AI 차단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

시는 연말연시 유명 행사를 전격 취소한 것은 최근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AI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고, 축산업계의 어려움 해결에 동참과 무엇보다 AI의 조기종식과 차단 대책의 일환으로 결정됐다.

이번 신라대종 타종식에는 시민 등 관람객 3만여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 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올해 지진, 태풍 등 침체된 지역경기와 관광활성을 위해 3년간 준비한 신라대종 제야의 종 타종식 등을 AI 방제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어렵게 결정한 만큼 시민, 관광객들에게 양해를 드리고 AI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AI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 협조 등 정국안정에 온 힘을 기울려 줄 것"을 당부했다.

윤용찬 기자

포항시장, 장성-흥해간 도로 조기개통 현장 점검

장량휴먼시아 사거리에서 남송IC 방향 1차로 임시개통

이강덕 포항시장이 27일 만성 정체구간인 장성~흥해간 도로 조기개통을 위해 공사 진행 상황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는 이강덕 시장을 비롯해 박문하 도의원, 김성조, 박승훈, 김상민 등 환여·장성 지역 시의원과 지역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도로확장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상황을 점검했다.

장성~흥해간 도로 확장공사는 장량동 인구증가로 출퇴근시간 교통정체가 만성화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사업은 왕복 4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지난해 사업비 10억을 투입해 기쁨의 교회 쪽 차선에 대해 2개 차로 확장공사를 실시했다.

이어 올해는 32억의 예산을 투입해 반대방향 포항교육지청 쪽 2개 차로 1.5km 구간에 대해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남송IC 램프구간도 개선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까지 우선 1개 차로를 임시 개통할 예정이며 이로써 출근시간 상습차량 정체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공사기간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임시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를 잘해서 출퇴근 차량과 남구 방면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정체를 해소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세훈 기자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하면 더 큰 힘 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 기업과 기관단체에 서한문 발송

포항시가 이강덕 시장 명의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라는 제하의 서한문을 지역 내 650개 기업 대표와 지역경제 유관 기관단체 등에 27일 발송했다.

시는 최근 국내외경제 상황에 따른 철강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상권도 위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 서한을 발송했다.

이강덕 시장은 서한을 통해 "가라앉는 지역경제, 뭐든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사람이 북적북적하는 지역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서 포항사랑 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단기 일자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말했다.

또 "우리 함께 지역 생산품을 애용하고, 온 가족이 외식을 한 번 더 하면서 건전한 소비분위기가 조성되어 도시의 활기를 되찾으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1000억 원의 포항사랑 상품권 발행, 긴급 경제 활성화 자금 280억 원 집행, 청년 및 소외계층 일자리 1만3420개 마련,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자금 지원 80억 원,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 지원 88억 원 등 민생경제·안전 10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세훈 기자

경주시, AI바이러스 (H5형) 확인 총력 방제

경주시는 27일 오전 강동면 국당리 유강터널 부근 형산강 주변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 H5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H5형이 확인된 국당리 주변 10km 이내에는 5농가 32만 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대규모 사육농가인 희망농원에는 40만 수가 사육되고 있다. 이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인지는 28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확진 발표 전 AI 확산 차단을 위해 반경 3km이내 이동 제한과 10km이내 임상검사를 강화하고 전용차량(계란, 사료) 외에는 희망농원 출입을 통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기 운영하던 거점 3개소 및 통제 소독소 3개소 등 6개소를 24시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오후 3시경 형산강 주변 둔치에 광역방제기 2대와 항공기를 이용한 광역 소독에 나서는 한편 선제적 방역 강화를 위해 육군 제50사단에 제독차량 지원을 요청했다.

최양식 시장은 "경계지역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확대, 광역방제 실시 등 철저한 차단 방역과 AI 사수에 총력을 기우리고, 민관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AI 확산을 막겠다"며, "시민들도 가금류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해 소독, 방역, 이동제한 협조 등 AI 조기종식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용찬 기자

영천 청도 영덕 울진

김영석 영천시장은 28일 ㈜대영산업, 영천시우리음식연구회, 대한한돈협회영천시지부로부터 장학기금을 기탁받는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8일 실·과·소 담당 주무관회의를 주재해 AI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한다.

울진군-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협약

울진군은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경일대학교와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울진군이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1억 원을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경일대학교는 향토생활관 시설 및 운영을 담당해 2017학년도 입학생과 재학 중인 울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학교 기숙사에 울진군 출신 학생 10명 우선 선발과 더불어 5년간 생활관비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을 선도해 나갈 유능한 인재양성과 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에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울진군,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노선시간 조정

울진군은 농어촌버스 이용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버스 노선 및 시간을 조정 시행하고 그동안 벽지노선으로 운행되던 기성면 삼산, 방율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인 '시골버스'를 도입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촌버스 노선 및 시간 조정은 삼산, 방율지역 시골버스 운행으로 벽지노선이 폐지돼 평해에서 출발하는 버스의 시간표가 일부 변경됐고, 소광1리(솔평지), 덕산2리(고든해), 후포에서 울진군의료원으로 오는 노선 개설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으로 주민 편의 증대에 중점을 뒀다.

또한, 기성 삼산, 방율지역 시골버스 도입으로 기존 하루 2회 운행하던 버스를 3회로 늘리고 시골길을 달릴 수 있는 작은 버스를 도입해 그동안 버스가 들어가지 않았던 삼산리 서잠마을을 운행에 포함하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변화된 여건과 환경에 적극 대처해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삼 기자

상주-영덕고속도로 영덕 톨게이트 제 기능 못해

교통량 잘못 파악…이용객만 골탕

지난 26일 상주-영덕고속도로가 전 구간 동시 개통됐으나, 이용객들은 상주-영덕고속도로가 개통한지 하루 만에 교통대란으로 영덕 톨게이트 통과하기가 2시간 이상 걸린다며 대책을 강구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동안 교통 오지로 영덕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상주-영덕 고속도로 첫 손님맞이'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도약을 기대했다.

총연장 107.6km인 상주-영덕고속도로는 2009년 12월 14일 착공 이후 7년 만에 완공돼 상주에서 영덕까지 승용차로 3시간 걸리던 거리가 1시간, 안동까지는 30분 정도로 획기적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통 한지 하루 만에 허점을 드러냈다.

영덕 톨게이트 통과 차선이 두차선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한 주민들은 "영덕톨게이트를 기점으로 특별한 사고없이 3-4Km 정체돼 톨게이트 통과하는 데만 2시간 이상 허비했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용객들은 애초부터 교통수요를 파악하지 못해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 담당자는 설명하기보다는 발뺌으로 일관 했고 "설계가 옛날 거라 모른다"고 할 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연말연시 영덕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김승건 기자

영덕군, 알찬행정으로 2016년을 일구다

경제활성화·문화관광 등 지자체 20개 부문 수상

2016년 내내 영덕군은 연말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 준비로 분주했지만 행정 본연의 업무 또한 알차게 수행했다. 민선6기 전반을 마무리하고 후반을 시작한 7월, 군수 공약사업은 이행률 58.1%를 기록했고 중앙정부와 경북도, 민간으로부터 고루 인정받아 올 한해만 20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경제·사회안전망·농업경쟁력 향상 성과

국내경기 불황, 국가경제정책 표류로 지자체 경제활성화 정책이 더욱 주목받는 시기에 영덕군은 고용창출과 지역경기활성화 부문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올 한해만 4000개 일자리를 만들어 '2016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과 상사업비 9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6년 경북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 전통시장활성화 부문에서도 '전통시장 그 곳에 가고 싶다' 프로그램 등 여러 사업의 성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도 앞장서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규제개혁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5000만 원도 받았다.

갈수록 양극화하는 사회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공동체와 자원봉사 육성 부문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렸다. 영덕 고유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2016새마을운동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2016년 경북도 자원봉사 우수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군에서 시행한 '자원봉사행복마을만들기', '냉장고를 부탁해', '청춘열차봉사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나눔과 봉사를 매개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 7개 부문 수상 쾌거

올해도 영덕의 유명 특산물 '영덕대게'의 진가가 널리 공인됐다. '2016 Korea Top Brand' 특산품, '2016년 대한민국대표 브랜드' 수산물, '여성 소비자가 뽑은 2016 프리미엄브랜드' 수산물 부문에서 모두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선정했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명품도보길 '영덕 블루로드' 또한 '2016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테마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해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그 결과 영덕군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공로가 인정돼 12월 '제6회 2016년 대한민국 한류대상' 문화관광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독서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해온 영덕군은 예주작은도서관이 '내 생애 첫 책 지원 사업' 공모전에서 도서정보·교육프로그램 제공 실적이 우수해 은상과 동상을 받았다.

또한, 독서활동과 기부를 결합한 기부리딩 기부리더 운동과 독서동아리 운영 등으로 독서문화의 저변을 넓힌 성과로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을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받은 책 200권은 지역도서관에 기증했다.

▣재해예방·건축·산림·환경행정 실적 우수

수해와 산불 등 재해예방과 건축·산림·환경분야에서도 군 행정은 두각을 나타냈다. 아곡 소하천(병곡면 아곡리)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치수기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국민안전처 주관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전국 공모전'에서 기관표창과 포상금 5억 원을 수여받았다. '2016년도 경북도 산불방지 대응태세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 주목을 받았다. 군민, 공직자가 힘을 합쳐 예방활동을 펼친 결과 3년 연속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게 주요했다. 게다가 '2016년 경북도 산림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돼 산림분야에서는 도내 최우수 기관임을 증명했다.

또한, 꾸준한 조례개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실적에서 고른 평가를 받아 '2016년도 경북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고속도로·철도 등 대형국책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 노력 등을 인정받아 '2016년도 경북도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희진 군수는 "올 한해 고속도로 개통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직원들이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성과에 감사한다. 내년에도 더욱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서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건 기자

영천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예방 활동 펼쳐

음주운전 증가 사전 차단

영천시는 27일 시청오거리에서 영천경찰서, 모범운전자회영천지회, 영천교통, 법인택시(영천, 팔팔, 중앙택시) 등 60여 명이 참석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예방 및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연말연시 각종 송년회, 친목모임 등 모임 증가로 술자리가 늘어난 만큼 음주운전 증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연말음주운전 집중단속 예고 및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치면서 유관기관 및 교통안전봉사단체의 협력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현수막을 지참해 홍보에 나섰으며, 시민들에게 홍보전단을 나눠 주며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 안하기', '교통질서 생활화 운동'에 참여했다.

구본태 교통행정과장은 "연말연시에는 술자리가 많은 만큼 음주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숙취운전 역시 자제 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스스로 교통법류를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일만 기자

영천시, 농정분야 상복 터졌네

기관과 농업인 모두 뛰어난 역량 발휘

영천시는 행정기관과 농업인 모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올 한 해 농정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 9월에는 농식품부가 실시한 2016년 FTA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최우수인 1등급기관에 선정돼 내년도 사업비 30% 증액지원 및 기존 38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게 돼 농가 혜택 증대에 기여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전국 175개 특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16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평가에서 영천한방진흥특구가 최상위권에 입상해 우수특구로 선정돼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했으며 지난달 제2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김관용 경상북도 도시사로부터 2016년 경북도 시군농정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올 연말에는 경북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쌀 안정생산·수급안정, 동계작물 재배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016 식량생산시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2016 경북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영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수상했다.

민간인 수상분야에는 전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복숭아부문에서 박광흠(임고면) 씨가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 한국유기농협회가 주관하는 유기농인상(유통부문)에 ㈜채운들 대표 오세창 씨 부부가 수상했으며, 경북농어업인대상에서 10개 부문 전체대상(과수화훼부문)에 신종협(신녕면) 씨, 농수산물 수출부문 대상에 ㈜모아 대표이사 김종수(남부동) 씨가 수상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2016년도 전국 사료작물 사일리지 품질경연대회에서 김윤기(청통면) 농가에서 생산한 사일리지 시료가 최우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해 품질 우수성을 입증했다.

김일만 기자

구미 경산 김천 칠곡

최영조 경산시장은 28일 오전 경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16년 경산시 교육행정협의회' 에 참석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28일 칠곡군 약목면 '박용문 약목면장 명예 퇴임식' 에 참석한다.

경산시 허가민원과,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기탁

경산시 허가민원과는 '경북도 인허가대상 민원처리분야 최우수상'으로 받은 상금 중 100만 원을 관내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해 달라며 지난 26일 경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경산시의 기부문화확산 분위기에 동참하려는 허가민원과 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게 됐다.

성금을 기탁한 허가민원과 성기완 과장은 "올 한해도 경산시 허가민원과 전직원이 한마음이 돼 다양한 복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열심히 본인의 역할을 해준 직원들 덕분에 뜻깊은 상을 받게 됐고, 이를 더욱 뜻깊게 사용하고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하자는 직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소중한 곳에 써달라"고 전했다.

신경운 기자

칠곡군, IA 유입·확산 차단 2017년 해맞이 행사 취소

칠곡군이 조류인플루엔자와 독감의 관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17년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칠곡군은 다음달 1일 자고산 정상 및 왜관 회전교차로 일대에서 2017년 해맞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인 AI 확산 추세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군민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읍면에서 자생적으로 개최하는 해맞이 행사사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칠곡군은 AI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AI 유입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 근무태세를 유지하며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은진 기자

구미시민들의 숙원 여객터미널 선진화 방안 제시

여객자동차터미널·정류장 선진화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구미시는 27일, 본관 3층 상황실에서 범시민 교통대책위원회 위원과 터미널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객자동차터미널·정류장 선진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여객자동차터미널·정류장 선진화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은 지난 7월부터 12월 까지 150일간 진행됐으며, 구미시 내 여객통행량 조사, 터미널·정류장 운영실태 및 운영상 문제점 분석, 이용객 대상으로 한 시설 이용만족도 설문조사와 선진화 추진 지역 벤치마킹 등을 걸쳐 최종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게 됐다.

연구 용역 수행 중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구미종합터미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터미널 중요 입지요건인 '위치 중심성, 이용 편리성, 교통혼잡유발 최소화'라는 3가지 기준을 세워 평가한 결과 이전보다는 현 부지 내 시설물 신축 안이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대안으로 제시됐던 전면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현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이므로 설계수명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됐다.

또 다른 종합터미널인 선산터미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건물 사용연수가 타 터미널에 비해 비교적 짧고, 입지가 선산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되, 현재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대규모 신축이나 전면 리모델링 보다는 터미널 이용객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부터 개선해 나가는 부분 리모델링 방식이 가장 현실성이 높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읍·면 지역에 소재한 시외버스정류장의 경우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고령인 사업자들이 대부분으로 더 이상 경영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해평·도개 등 일부정류장은 폐업 후 간이정류장 형식으로 전환을, 고아·산동 등 택지개발로 인구 유입가능성이 높은 일부 정류장은 다른 상업시설과 연계한 형태로의 개발 방향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남유진 구미시장은 "터미널 현대화는 구미시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다름없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 구미의 대외 이미지를 드높이고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명품 터미널 구축계획'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경산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료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시비에서 30% 지원

경산시는 내년부터 농작업 중 농기계에 발생되는 인사상,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기계종합 보험의 자부담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하는 보험료는 시비 2200만 원으로 높은 자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입 보험료는 국비와 농가가 각각 50%를 부담했으나 내년부터는 시비에서 총 보험료의 30%를 지원함에 따라 가입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광역방제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스피드스프레이어,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결속기, 농용굴삭기, 항공방제기를 포함한 12기종이며,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는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신청 및 가입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신경운 기자

김천시, 전반적 농촌지도업무 빛나

2016년 지방농촌진흥기관 부문평가 우수농업기술센터 선정

김천시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16년 지방농촌진흥기관 부문평가에서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농촌진흥청이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사업의 발전과 조직성과 향상, 맞춤기술교육, 개발기술 등 20개 지표로 기관의 전반적인 농업 발전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이다.

특히,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가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 6차사업과 연계된 농촌체험상품 개발, 미생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 농업 확산, 농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보급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킨 점이 인정돼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센터는 억대농육성 아카데미 농업인 대학, 품목별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 공간을 마련해 11과정 820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5개 분야 21개 신기술 보급에 매진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김철용)은 "직원들이 1년간 노력한 땀의 결실을 인정받아 무엇보다 감사하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현실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의 진흥사업을 우리 지역 맞춤형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진 기자

구미시, 소규모 복지시설에 사랑 베풀다

사회복지시설 7개소 방문

구미시는 26일 연말을 맞아 김휴진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주민복지, 사회복지, 가족지원 3개과 과장과 사회복지행정동우회(회장 이재삼) 회장단 등 8명이 함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7개소를 방문, 성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시설 위문은 김휴진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배정미 주민복지과장, 류은주 사회복지과장, 이장호 가족지원과장과 이재삼 사회복지행정동우회장과 임원 등 8명이 복지분야 11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및 올해 복지분야 5관왕 기관상 수상을 기념,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7개소를 방문했다.

이날 위문 시설은 연말연시 자칫 소외 될 수 있는 후원이 드문 소규모 복지시설들로 아동그룹홈, 노인시설,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등이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후원품(쌀 10kg, 60포)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했다.

김휴진 복지환경국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때 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도록 복지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 열심히 뛰는 것이 복지구미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칠곡군, 201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완료

칠곡군은 올해 13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하수도 △보안등 △단지 내 도로 등 아파트의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를 실시한다.

그동안 매년 꾸준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도 1억6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13개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위험시설물인 담장·옹벽·지반 보수와 생활불편 사항인 하수도 및 보안등 교체사업, 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 등이 입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됐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주거수준을 개선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은진 기자

문경 상주 고령 성주

이정백 상주시장은 2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상주시장학회 장학금을 수여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28일 대가야홀에서 열리는 '2016 대가야체험축제 추진위원회 정기 총회'에 참석한다.

상주시 (구)잠사곤충사업장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2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상주시 (구)잠사곤충사업장, 부산시 강서구 농업기술센터, 의정부시 가능3동 주민센터 3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부족, 관리비용 증가에도 재원부족으로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모델로 공공업무시설, 민간상업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사업계획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을 총괄하며, 시는 개발비용을 장기분납 상환하는 사업이다.

(구)잠사곤충사업장은 2013년 경북도 잠사곤충사업장을 함창읍으로 신축이전하면서 상주시 교환부지로 본래 기능을 잃음에 따른 관리부실, 재산운영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시청업무시설, 문화시설 등을 보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을 검토한다. 이은진 기자

문경시, 금연 아파트 지정

문경시는 문경 코아루아파트와 문경 매봉2주공아파트를 문경시 '담배연기 없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코아루아파트와 매봉2주공아파트는 거주민의 동의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청정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문경시보건소는 금연 현판과 안내판을 지원하고 계도기간 6개월 동안 게시판과 금연 안내방송,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세영 기자

고령군, 남부내륙철도 착수 시·군 행정협의회 참가

고령, 김천, 성주 등 9개 시·군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처

고령군은 지난 26일 김천시청에서 개최된 '남부내륙철도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설립을 위한 서명식에 참가했다.

이날 남부내륙철도노선이 통과하는 고령, 김천, 성주 등 9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긴밀한 협조와 공동대처를 위한 '남부내륙철도추진 시·군 행정협의회'를 출범하고 대정부 촉구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한 단체장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통 6개월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는데 본 사업은 3년이 되도록 아직 비용대비 편익(B/C)을 검토하고 있어 정말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끄는 것은 B/C를 나오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2011년 4월과 2016년 6월에 제2차 및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연이어 확정·고시됐고, 제18대 대선공약에도 반영된 사업임에도 불가하고 아직 예비타당성조사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정석 기자

문경시-㈜오미원, 40억 투자협약

문경오미자테마터널 조성

문경시는 지난 26일 오후 시청 제2회의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오미원(대표이사 박덕순)과 문경오미자테마터널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오미원은 경북팔경중 1경인 진남교반에 위치한 석현터널(504m)에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미자 조형물, 오미자체험 코너, 오미자 상품전시 및 판매, 오미자 와인바, 기념품 코너, 갤러리, 조명을 활용한 은하수 광장, 와인 숙성고 등 문경의 대표 농산물의 하나인 오미자를 테마로 체험과 상품판매 등 터널이라는 색다른 공간을 활용, 문경오미자테마터널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미원 박덕순 대표이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의 협조로 이번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아름다움 자연경관과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문경오미자 홍보 및 판매와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 최고의 문경오미자테마터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2021년 중부내륙선 개통을 대비해 문경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경 단산모노레일, 가은 녹색문화상생벨트와 더불어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2017 성주 가야산 해맞이' 행사 취소 결정

AI 확산 방지, 청정지역 보호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과 경북지역 경산, 김천, 대구 금호강 등 야생조류 사체에서 고병원성 AI 가 발생되는 등 심상치 않은 확산으로 성주군에서는 성주 가야산 군민화합공원에서 개최예정이었던 '2017 성주 가야산 해맞이 행사'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성주문화원(원장 도일회)에서 주관하는 성주 가야산 해맞이 행사는 2000년 뉴밀레니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지역민들의 한해 소망을 염원하고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는 등 성주를 감싸는 가야산에서 한해 안녕을 기원하고 있는 지역의 중요한 행사이지만, 27일 오전 김세환 부군수 주재로 문화관광과, 농정과, 축산관련 단체, 성주문화원 등과 긴급회의를 갖고 '2017 성주 가야산 해맞이 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김항곤 군수는 "성주 가야산 해맞이 행사가 지역민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인 대구, 칠곡, 고령 등에서도 찾는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지만, 인근 김천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되고 지역 축산농가 및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커져감에 따라 AI확산 방지를 위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AI가 침투하지 않은 우리 지역을 끝까지 청정지역으로 지켜내기 위해 지역 양계, 오리 농가 등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 대해 철저한 예방 소독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IC등 외부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 방역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균 기자

고령군, 급수구역 확장사업 지속 시행

물복지 실현 앞당겨

고령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물복지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0.7%로 경북도 군부 중에서 가장높은 보급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맑고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의 취수원인 지하수의 수질오염에 대한 불안과 수량부족이 심해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덕곡면 예리, 본리1리, 가륜1·2리, 원송리, 쌍림면 합가1리, 하거1·2리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22억8600만 원을 투입, 2017년 2월까지 급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쌍림면 백산리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 3억5700만 원을, 성산면 고탄리에 복권기금사업으로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지난 8월 완공,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8개리 527가구 1067명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2017년에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28억5700만 원을 투입, 덕곡면 백1·2리와 쌍림면 신촌리, 산주리, 합가2리, 평지리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 5억9000만 원을 투입, 대가야읍 저전리에, 복권기금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비 4억 원을 투입, 다산면 월성리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7년 말에는 고령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95%를 넘어 진정한 물복지 실현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손정석 기자

상주시, 지역경제활성화 기관 단체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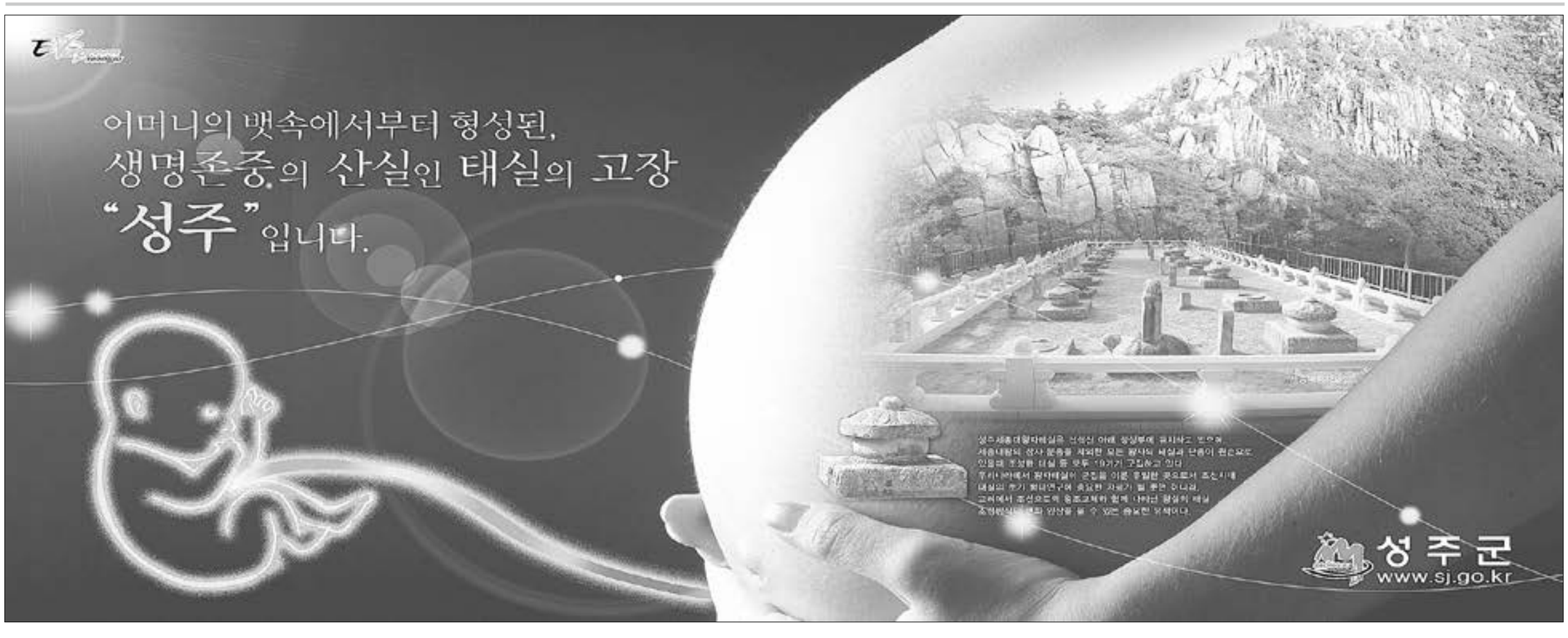
연말연시 작은 모임 실천부터 지역경제살리기에 동참한다

상주시는 지난 23일 심각단계로 접어든 AI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과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타 지역 방문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자칫 AI 차단방역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관내 기관 단체장을 대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농축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상주시의 경제문제에 대해 각급 기관·단체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등 시종일관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으며, 연말연시 각종 모임을 관내에서 간소하게 개최하고, 각종 행사시 상품권과 선물은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행사시에는 닭과 오리 소비를 활성화해 위축된 축산농가의 사기를 앙양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생활화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이를 소속 직원과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줄 것과 지역 농산물의 대도시 홍보전략을 수립해 판로를 개척하고 지방 공공요금의 동결과 개인서비스 요금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경제 안정화에 함께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 시민들이 동해안 지역을 방문하는 등 지역 재화의 유출도 있겠지만 역으로 상주 농특산품들이 동해안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서는 공세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진 기자



안동시 올해 체납세징수 괄목할 성과 올리다

체납세 징수 목표액 50%초과 달성

안동시가 2016년 체납세 징수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시의 올해 이월체납액은 131억9500만 원으로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체납세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 체납세 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30%인 40억 원으로 체납세 징수 계획을 세워 노력한 결과 50%초과 달성했다.

시는 체납세 징수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 내 전 금융기관에 체납자 예금조회,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했으며, 체납차량 공매·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재산상에 많은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해 체납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세 감소의 효과를 보게 됐다.

고액체납으로 체납세 징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던 골프장 체납세를 신탁공매로 47억 원을 징수해 큰성과를 올렸다.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지방세수를 확보토록 촉구한바 있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올해 징수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체납세 징수를 위한 동기를 부여했다.

그 결과 12월 현재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체납세 60억원을 징수해 애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올렸다.

안동시 최돈식 체납담당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자의 재산압류·공매·행정제재를 강화는 물론 체납세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김주수 의성군수는 28일 재난상황실에서 열리는 의성전통시장 특성화시장육성 컨설팅 간담회에 참석한다.

의성군 사곡면, 산수유연주단 '희망 2017 나눔' 재능기부

의성군은 지난 23일 '희망 2017 나눔' 사곡면 성금모금행사에서 산수유연주단(단장 노정욱)이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연주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연주단은 크리스마스 캐롤과 가요 등을 연주했고 연주단원들의 연주로 행사장은 성황을 이뤘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의성군 사곡면새마을회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기관단체 임직원 300여명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훈훈한 온기를 전했다.

정경숙 사곡면장은 "기부에 참여해주신 주민들과 각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3월 창단한 산수유연주단 10명의 단원들은 매년 군내 각종지역행사에 재능기부를 해오고 있으며, 열성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박재성 기자

의성군, 군정모니터 간담회

의성군은 군정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전파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여론수렴 및 신속한 군정 반영으로 정부 3.0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16 군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27일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김주수 의성군수와 40여명의 군정모니터 요원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군정 홍보와 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군정모니터는 각 읍면별로 2-4명씩, 남녀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요 역할로는 정책, 시책,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및 제보와, 계층별 주민여론 및 집단민원 제보, 주요 군정에 대한 현장 확인과 군정 전반에 대한 입체적 홍보를 주목적으로 활동한다.

의성군은 앞으로 군정모니터를 적극 활용, 군의 주요 축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고, 나아가 군민과의 상호교류와 의견수렴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밑받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재성 기자

예천군, 평생학습공동체 구현 위해 노력

배움 가득한 예천, 80여 개 프로그램에 5400여 명 참여

예천군은 모든 군민이 배움을 통해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2016년 한 해 동안 80여 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54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여성의 자기계발 및 사회참여 교육, 면단위 여성들을 위해 보문면과 감천면에 찾아가는 예천여성대학 운영으로 23개 과정에 107명이 수료했고, 여성회관 여성교육을 운영해 17개 과정에 294명이 수료했으며, 이동여성회관 여성교육으로 8개 면 9개 과정에 190명이 수료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주민 역량강화 교육으로 예천아카데미 운영, 주민자치센터 3개소 지원, 평생학습마을 지원, 노인교실 4개소 운영, 성인 문자해득교육을 실시했으며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증 취득과정과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과정은 교육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평생교육 활성화 교육으로 19개 동아리를 지원해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분위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마다 연간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동아리 발표회 개최로 교육의 즐거움을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 연령층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 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2017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배움을 향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아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학습하고 발전하는 예천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의성군장학회 2016년 마지막 장학금 수여

87명 학생 5900만 원 지급

(사)의성군장학회는 지난 26일 의성군청 회의실에서 학교장, 장학생, 학부모, 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장학생 선발은 지난 16일, 장학생 선발 이사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소외계층 47명, 예체능 특기생 31명, 이장 자녀 대학생 9명 등 총 87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이번 예체능 성적우수 장학생은 전국대회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생은 최고 250만 원, 고등학생은 최고 70만 원, 중학생은 최고 50만 원을 지급, 31명이 총 203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또한 특별장학금은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대학생 중 법정저소득층 자녀로서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7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 15개교에서 47명이 총 291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이장 자녀인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9명에게 모두 9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박재성 기자

군위군, 모범 주민과 간담회 민간인 유공자 시상식 열어

국·도정 및 군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과 더불어 주민의견 수렴 자리 가져

군위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주민과의 간담회 및 민간인 유공자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은 훈장수여, 농림식품부 장관, 도지사 및 군수 표창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 구본국 회장을 포함해 농림식품부 장관 표창 1명, 도지사 표창 3명, '2016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우수기관 1곳, 군수표창 49명 등 총 55명이 수상했다.

시상 후 열린 간담회에서 수상자들은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생각한 바를 건의했으며, 김영만 군수는 이에 일일이 답변하면서 군에서 추진 계획 중인 사업들에 대한 설명도 함께 했다.

한편 김영만 군수는 수상한 유공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국·도정 및 군정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반장 등 민간인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작은 보답으로 간담회를 겸한 시상식을 가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군위사랑으로 군정 발전에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했다. 박재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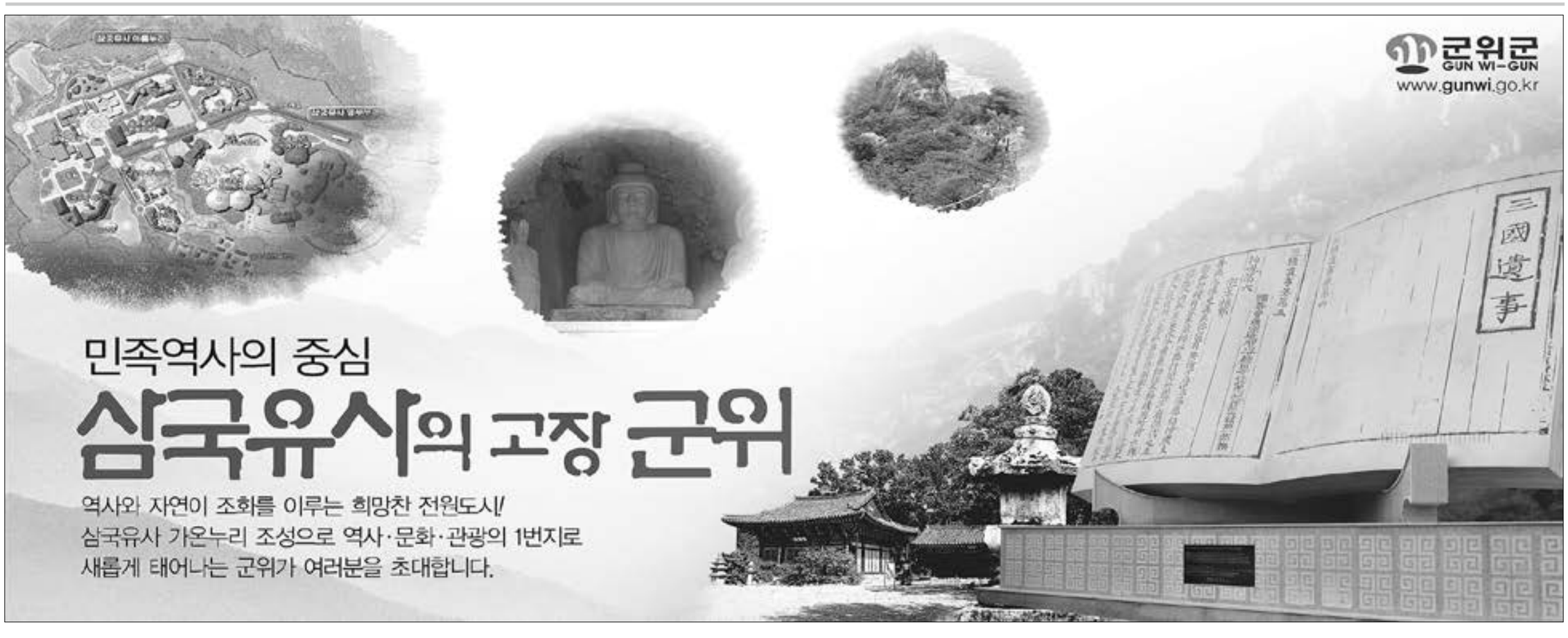
군위군 농촌건강생활촌 준공식

군위군은 27일 효령면 마시2리 마을에서 관계자 및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건강생활촌 준공식을 가졌다.

효령면 마시2리 마을은 2014년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3년간 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아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작업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인 건강증진실을 신축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농작업 보조구를 보급하고 농업인 건강검진 등을 실시했다.

또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체력단련 지원을 통해 건강관련 생활습관변화와 실천을 생활화해 활력 있는 농업 및 마을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동철 이장은 "열악한 농작업 환경에 따른 피로회복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마을 육성에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크게 감사드리며, 건강생활촌이 농작업에 지친 주민들의 피로회복의 장소로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의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 주민들의 화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영주 봉화 청송 영양

장욱현 영주시장은 28일 오전 시청 민원실에서 개최되는 시장과 함께하는 '수요행복민원실'에 참석한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재)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 제2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한다.

영주시, 인천시 동구와 공동발전 자매결연 체결

영주시는 인천시 동구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장욱현 영주시장과 이흥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27일 영주시청 3층 회의실에서 양 자치단체의 발전과 상생협력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실질적인 교류활동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자치단체는 지역특산품 및 농산물 직거래, 행정 분야의 우수시책 및 성공사례 교환 및 지원, 각종 재해 시 장비, 인력 등 협조 지원, 민간단체 교류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등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장욱현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양 도시 간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양 지역민의 실질적인 혜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 확신한다"며, "민·관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주시, 재난상황 홍보전광판 설치

영주시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사회재난의 증가에 대비해 가흥신도시 적십자병원 사거리에 재난상황 홍보전광판을 설치해 상시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설치한 전광판은 총사업비 4억7000여만 원을 들여 가로 8.7m, 세로 5.2m(최대높이 16m)의 초대형 크기의 컬러 LED전광판이다. 실시간으로 기상상황 및 각종 재난·재해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생활정보 및 공익홍보, 주요 행사안내 등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했다.

시는 아파트 등 주택이 밀집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적십자병원 개원 예정 등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가흥신도시에 전광판을 설치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상기 기자

영주시, 지방세 수입 사상 최대

목표대비 120% 초과 달성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영주시가 올해 거둘 지방세 규모가 5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시는 올들어 11월까지 징수한 지방세가 481억 원으로 목표액(413억 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이달 추가로 거둬들일 지방세를 합하면 징수액은 500억 원을 넘어서 목표대비 120%를 초과달성 할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는 부과 전 철저한 과세자료 점검과 누수 없는 세원관리, 과오납금 발생 시 신속한 환급 처리,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의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징수율 1%이상 높이기 등을 적극 추진,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관리 비용을 최소화했다.

특히,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사전·사후 안내문 발송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징수체계를 갖추어 지방세수 확충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편 숨은 세원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2억 68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세수누락을 방지해 공평과세 기반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세무과 전 직원의 관심과 협업을 통해 책임징수제 및 고액체납자 관리,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의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 전직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소액 체납세 문자전송 납부독려 외에도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을 통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365일, 24시간 언제어디서나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세입통합 ARS(1522-3223) 간편납부 시스템 도입 등 각종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납세자 중심의 봉사 세무행정 구현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세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일 세무과장은 "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시 발전의 근간인 자주재원 확충과 시민이 행복한 힐링영주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세무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AI 인체감염 봉화는 이상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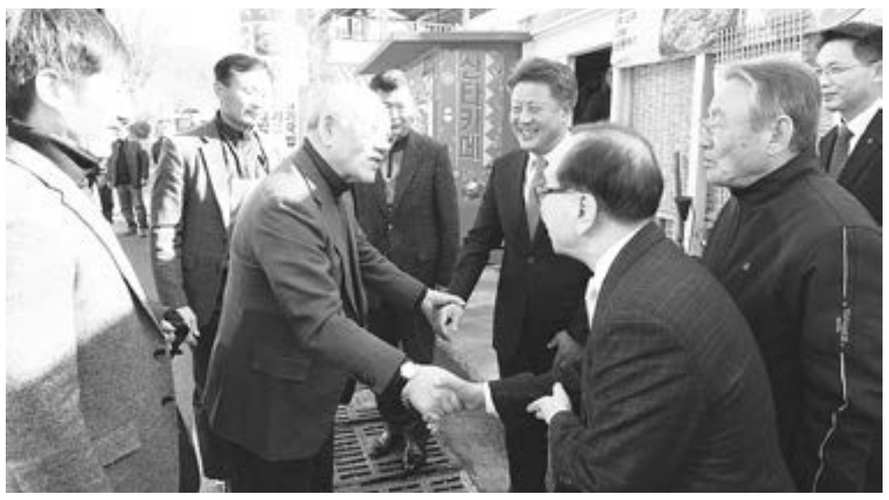
봉화군보건소 인체감염 대책반 운영

봉화군보건소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와 인체감염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인 농장종사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와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개인보호물품, 인체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확보하는 등 인체감염 예방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된 닭, 오리 등 야생조류 또는 가금류와 직접 접촉 또는 배설물을 통해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바이러스가 열에 매우 약해 75℃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사멸하므로 닭고기, 계란 등 음식물은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후 음식을 섭취할 경우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인체감염 사례가 없지만, 동남아, 중국 등지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치사율이 매우 높아, 개인건강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손을 자주 씻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로 눈과 코를 가리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AI의 주요 증상이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 일반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므로 발생농장 종사자 또는 방문자가 상기 증상을 보일시는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상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봉화 분천 산타마을 방문

백두대간 협곡열차 체험

2016 대한민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봉화 산타마을에 지난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분 등 20여 명이 방문, 주민들이 직접 농사 지은 농산물로 오찬을 즐기며, 백두대간 협곡열차(한국관광 100선)를 체험하고 산타마을에 조성된 각종 포토존 등을 둘러 보았다.

'대한민국 관광의 별, 산타마을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지난 17일부터 문을 연 산타마을에는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산타 레일바이크, 당나귀 꽃마차 등 다양한 체험과 특별한 포토존들이 조성돼 있으며, 특히, 풍차산타방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담은 덕담을 안겨주고 있다.

봉화 산타마을에서는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포토존은 물론 야간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트리와 조명시설을 설치돼 있으며, 산타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한겨울의 추억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한대사 방문을 통해 국제적인 산타마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전상기 기자

청송군, 지역나눔숲(월막근린공원) 조성 완료

지역주민 특화공원으로 자리매김

청송군은 청송읍 월막리 179-3번지내 '2016년 지역나눔숲(월막근린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했다.

월막근린공원은 도시개발법에 의거 1973년 12월 31일 도시공원으로 지정했으나 재정여건상 공원조성사업을 못하던 중, 2009년 공원조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2015년도 공공사업의 발생잔토를 매립해 부지를 조성했으며, 그 후 중앙정부의 공공기금사업(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지원사업)인 '2016년 지역나눔숲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사업비를 절감한 좋은 사례를 남겼다.

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8억여 원으로 소나무·이팝나무 등 교목 351본, 나무수국·모란 등 관목 5546본, 꽃잔디 등 초화류 1만5720본의 수목식재와 데크·산책로 개설로 건강 증진 뿐 아니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색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청송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과 어린이·노약자등 사회적 약자층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특화공원으로 조성돼 주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건강한 휴식공간은 물론 소통의 장소가 되길 바라며, 모두에게 열린공간이 되도록 세심한 사후관리를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영양사과, 설대비 수도권 판촉·마케팅 활동에 박차

농협영양군지부 남영양농협 합동

최근 농협영양군지부(지부장 이준)과 남영양농협(조합장 박명술)이 합동으로 영양사과의 목표시장인 수도권에 대한 판촉,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소비자와 유통관계자에게 영양사과의 우수성과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난 21일 이준 지부장외 5명은 서울 가락시장내 중앙청과를 방문, 시장관계자, 중도매사장 및 소비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영양사과를 홍보한 후 이날 오후에는 농협안성물류센터를 방문, 설 대비 선물용 사과판매를 위해 상호 협의했다.

영양사과는 지난해부터 품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시장의 수요에 맞추는 등 유통시스템을 개선해 수도권 도매시장과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앙청과와 지난해 10월 영양군·농협과 MOU를 체결, 영양사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유통정보와 상품정보를 신속하게 생산지에 전달하는 등의 결과로 도매시장내에서 점차 영양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국내 유명산지 사과에 버금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권윤동 기자

MISOPE
모다아울렛 3층 미소페
대표 고재운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 16
010-2327-5555 / 053-593-4838

‘이색 송년회’ 우린 이웃과 함께 해요!

달서구, 송년행사 대신 연말 직원 봉사활동 전개

달서구는 직원 송년행사 대신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 실천으로 한 해를 뜻 깊게 마무리하고 있다.

이번 연말 직원 봉사활동은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과 함께 온정을 나눠야 한다는 직원들의 마음과 연말연시를 검소하고 내실있게 보내기 위해 직원 1% 나눔 성금과 직원자율 모금으로 추진하게 됐다.

각 실·국별 50-60명씩 저소득세대 등을 찾아 연탄 나누기, 급식봉사, 장애인 일손돕기 등 부서별로 노력봉사는 물론 직원 1% 나눔 성금과 직원자율모금으로 후원금품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기획조정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직원 60여 명이 저소득가정 10세대에 연탄 3000장을 전달했고, 연료뱅크에도 나눔을 실천했다.

27일에는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상인,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급식봉사 활동 등을 펼쳤다.

28일에는 경제환경국, 도시안전국 직원 110여 명이 성산복지재단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식사수발과 말벗이 돼 드리고, 달구벌종합복지관 섬들보호작업장과 대구다운회 장애인근로작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머리핀과 자동차 부품 조립 등 공동작업으로 장애인들과 소통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어려운 지역주민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봉사활동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를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서구는 2008년부터 연말 형식에 치우치던 종무식을 개최하지 않고 관내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연탄 나누기, 무료급식봉사, 장애인 일손돕기 등을 통해 이웃사랑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최영우 기자

순복음교회 이웃사랑 백미 남구청에 기탁

이웃돕기 백미 400포 전달

대구시 남구청은 26일오후 남구 대명10동 소재 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건호)에서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백미 400포(10kg, 8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건호 담임목사를 비롯해 순복음교회 관계자 7명이 참석했으며 이번에 전달된 백미는 관내 저소득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사랑의 백미를 전달해 주신 순복음교회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꼭 필요한 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흥규 기자

대구한의대 정지욱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한 공로 인정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바이오산업융합학부 정지욱 교수(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장)는 지난 2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2016년도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산학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다양한 기술 집적을 통한 기업체의 성장 기반 기원 등 끊임없는 노력을 펼쳐,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

정지욱 교수는 “지역 한방 관련 기업체의 성장과 기술 집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기업체와의 협력과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준 대구한의대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감사를 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정지욱 교수는 상지대 학사, 중국 상해중의약대학 의학석사, 경희대 약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한한약사회 윤리위원장, 대구한의대 한방바이오창업보육센터장, 산학협력단 산학연구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 한약학회 회장, 대구한의대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단장, 공동기기센터장을 맡고 있다.

김진희 기자

대구시, 미래 이끌어 갈 청년들에 희망주다

대구시 ‘인재육성장학금’ 고등·대학생 110명 혜택

대구시는 2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장학생(110명) 대표 20명을 초청한 가운데 ‘2016년 인재육성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올해 장학생은 2016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접수를 받아 총 368명의 신청자 중 인재육성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대학생(70명)은 최대 200만 원, 고등학생(40명)은 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장학금은 1992년 재미교포 이국진 씨의 기부금 51억 원과 대구시 출연금 10억 원, 민간협력금 20억 원 등 총 81억 원으로 조성된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용되고 있다.

1995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 806명에게 93억6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우수인재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인재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축하하면서 “더 이상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구를 떠나지 않도록 특성화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대구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는 한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가 있는 도시,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더 젊고 역동적인 대구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히며, “장학생들도 대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훌륭한 인재가 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구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남부경찰서, 희망의집 ‘사랑나눔 음악회’ 열어

어르신 500여 명 따뜻한 시간 보내

남부경찰서(서장 윤종진)는 연말연시를 맞이해 관내 결식노인과 함께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27일 희망의집(이천동 소재)에서 5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배식봉사활동과 함께 ‘사랑나눔 음악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 색소폰 연주와 가수 김동아 등 10여 명이 재능기부를 해 쌀쌀한 날씨 어르신들의 마음을 한층 더 흥겹게 했으며, 간소하게 준비해간 과일 등 다과를 나눠드시고 음악에 박수치면서 시종일관 밝은 표정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다.

아울러, 배식활동을 하면서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융합형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과 교통사고 예방 수칙을 말씀드리는 등 노인 맞춤형 홍보활동도 이어갔다.

윤종진 남부경찰서장은 “관내 소외되고 그늘진 어르신들과 따뜻하게 동행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남부가 되는 일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안전한 남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흥규 기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의정활동 벌일 것”

대구시의회, 소외된 이웃에 급식 봉사활동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에서는 연말을 맞아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의 급식 봉사활동에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0일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에 이어 류규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사무처직원들과 10여 명의 봉사단을 구성해 27일 오전 자비의 집(중구 문우관길 65 소재)을 찾아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이어 시의회 봉사단은 11시 30분 부터 1시간여 동안 이곳을 찾은 300여 명의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급식봉사를 하면서 참된 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조일래 기자

서구청,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 만들기 앞장

서구청은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취약계층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반을 구성해 내년 2월 28일까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발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 또는 중지됐으나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역·터미널·공원·폐가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소외 계층 △빈곤·학대·방임·유기 등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이다.

구는 이들을 발굴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의 방문상담을 강화하고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 민간과 협력해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나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의 공적지원 △지역내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방문상담 및 후원물품 등 지원 △주거안전, 건강관리,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세대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맞춤서비스 지원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박광덕 기자

수성구 상동 희망나눔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전달

대구 수성구 상동 희망나눔위원회(위원장 정길중)는 26일 상동 에쉴리가구매장에서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상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류재현 기자

수성구 고산3동 사월교회 이웃돕기 백미 43포 전달

대구 수성구 고산3동 사월교회(담임목사 최영인)는 26일 사월교회에서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교우들이 직접 농사지은 백미 20kg 43포를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류재현 기자

MISOPE
모다아울렛 3층 미소페
대표 고재운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 16
010-2327-5555 / 053-593-4838

구미 아기천사 원생들 '불우이웃돕기 행복나눔 실천하다'

구미시 구평동 이화유치원 아기천사 사랑의 성금 전달

구미시 구평동 이화유치원(원장 김영미)과 원아들이 지난 26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모은 성금 40만 원을 인동동 행복복지센터(동장 이창형)에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화유치원 아기천사들은 매년 어려운 친구들을 돕기 위해 원아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은 산타 저금통과 교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마련해 왔으며, 올해도 인동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전달함으로써 그 의미가 배가 됐다.

또한 김영미 원장은 "용돈을 아껴 저금하고 직접 인동동 행복복지센터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나눔의 마음과 가치가 무엇인지 아이들 스스로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눔 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창형 인동동장은 아기 천사들에게 빨간 사랑의 열매를 전달하며, 기탁된 성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어린이들의 고운 마음을 칭찬 했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이 지역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어린 아이들에게 나눔을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은진 기자

오선 대표 정순옥 씨 사랑의 이불 600채 전달

소외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4800만 원 상당의 이불

오선 대표 정순옥(수비면 계1리 출신) 씨는 지난 23일 오전 관내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 달라며, 따뜻한 알레르망 겨울이불 600채를 영양군에 전달했다.

정순옥 대표의 이불 기부는 일회성이 아닌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따뜻한 행사로, 올해는 이불 600채, 48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

정순옥 대표는 "추운겨울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나눔을 통한 따뜻한 고향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정순옥 대표에게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성껏 보살펴 다 함께 잘 살아가는 행복한 영양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부 받은 이불 600채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6개 읍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과 경로당으로 전달 될 예정이다.

권윤동 기자

상주농기센터 '기술지원' 우수기관상 수상

경북 23개시군중 6개 시군 우수기관 선정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 경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에서 2016년도 농촌진흥사업 기술지원분야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고 상 사업비 3500만 원을 확보했다.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에서는 매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는 농촌진흥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유기적으로 협조로 농산물 해외수출 및 농업소득향상 부문에서 성과를 이뤄낸 우수시군을 주요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평가회에 참석, 수상한 손상돈 기술보급과장은 "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결집해 이뤄낸 성과로서 더욱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2015년도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공로상'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기술지원분야 우수기관상을 수상함으로써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은진 기자

㈜효성 구미공장,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이웃돕성금 1420만 원 전달

구미시는 26일 오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효성구미공장 김철수 총괄공장장 등 효성 관계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기탁식은 희망2017 사랑의 온도가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전달된 가뭄의 단비와 같은 나눔으로 지역민과 늘 함께하는 효성에서 이웃돕기 성금 1420만 원을 기탁하는 자리였다.

㈜효성 구미공장(김철수 총괄공장장)은 2010년부터 지역민들에게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해 왔고, 올해도 잊지 않고, 100여 명의 직원들이 직접 참여 효성회사에서 2000포기(2000만 원 상당)를 전달했으며, 이웃돕기 성금도 꾸준히 기탁해 왔다.

기탁식에 참석한 남유진 구미시장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바라보고,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기업' ㈜효성 구미공장의 지속적인 나눔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 새해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큰 힘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은진 기자

상주 은척초등, 한국조폐공사 견학도 하고 뮤지컬도 보고

은누리 감성 교육의 싹 틔우다

상주시 은척초등학교는 지난 21일 전교생 50명이 참여,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경산시)를 방문하고 뮤지컬 공연도 관람했다.

또한, 김기동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본부장은 은척초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다. 방문한 은척초 후배들을 환영해 주면서 화폐의 변천사 및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선배님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은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체험하기 어려운 진로체험을 해당 전문가와 직접 대면해 학습함으로써 농촌 학교가 안고 있는 진로 체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어 이날 대구 대백프라자 프라임홀 공연장을 찾아서 '호두까기 인형' 뮤지컬 공연을 관람했다. 뮤지컬 공연은 학생들에게 문화 예술의 감동을 맛보고, 인성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학생들은 대도시의 공연장을 찾아 가면서 도시와 농촌의 다른 점을 몸소 느꼈으며, 언니, 오빠, 동생들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해서 바람직한 감성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돼 은누리 감성교육의 싹을 틔우게 됐다.

선배님과 함께 하는 진로 체험활동 및 도시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건전한 인성, 감성을 키울 수 있었고, 전인적인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었다. 뮤지컬 관람을 하고 난 4학년 한 학생은 "감기로 몸이 아팠지만,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날 뻔 했어요. 최고의 날! 최고의 공연이었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진 기자

상주 연말연시 사랑의 나눔행사 잇따라

㈜올품, 상주시 방문 닭고기 1만수 전달

(사)한국육계협회 상주시지부와 프리미엄 닭고기 생산업체 ㈜올품에서는 26일 상주시를 방문,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나눠 달라며, 사랑의 닭고기 1만 수(5000만 원 상당)을 이정백 상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올품과 (사)한국육계협회 상주시지부가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과 나눔의 일환으로, 사랑과 온정이 필요한 연말연시에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들과 소통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올품 변부홍 대표이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달돼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소비위축 등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올품과 한국육계협회 상주시지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정성이 담긴 사랑의 닭고기는 관내 소외된 시설과 이웃들에게 작지만 큰 선물이 될 것이며, 이런 고마운 마음을 상주시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상주시 초산동에 위치한 (주)올품은 8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며, 연간 8000만 수의 닭고기를 생산 가공하는 상주의 대표적인 중견 기업으로 상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매년 사랑의 닭고기를 어려운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등 나눔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이은진 기자

문경시 술보다는 차, 이색 송년회 각광

다도로 심신의 안정 찾고 스트레스를 확~ 날려요

문경시는 건전한 송년회 문화를 조성하고, 심신의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서 지난 21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문경차문화연구원(원장 고선희)에서 차 문화 체험을 했다.

'문경전통찻사발축제'가 김제지평선축제, 화천산천어축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승격되면서 더욱 더 의미 있는 송년회가 됐다.

해마다 연말이 도래하면 술(酒)이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으며, 이는 비단 송년회뿐만이 아니라 사교모임, 직장인 모임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지나친 음주는 이성의 자제력을 넘어 음주운전 등 물의를 일으켜,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음주 회식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명하복에서 벗어나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색 송년회를 즐기는 모임·단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뮤지컬, 연극, 연주회 등을 관람하거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면서 뜻깊은 한 해를 보내기도 한다.

경제진흥과가 시도한 다도 체험 또한 송년회의 한 유형으로 차문화는 다도(茶道), 다례(茶禮) 등으로 불리는데, 직원들은 다도 이외에도 인사법(절),차의 유래·종류 등 일반상식 등을 배웠으며, 직접 만든 녹차·말차를 음미하며, 차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

박세영 기자

원추의 오늘 운세

음력 11월 30일·갑신

불황 상태이니 마음이 답답하겠지만 지난 것 잊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자세로 임하라. ㄱ, ㅂ, ㅎ성씨 애정문제와 자식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감이 좋을 듯. 모든 문제는 대화로 풀어감이 현명하다. 1, 3, 5, 7월생 파란색이 행운.

끈질긴 근성으로 매사에 임하라. 삶의 어려운 부분은 스스로 해결하라. 2, 5, 7, 11월생 과거의 고난을 거울삼아 현실에 충실할 때 사랑하는 가족 또한 웃음꽃 피겠다. ㄱ, ㅁ, ㅇ성씨 최선만이 모두를 위하는 길임을 알라.

힘들어 중도에 포기할 수 있으나 곧 새 운 열리니 자기수양에 힘쓸 것. 대인관계에 방심은 금물이며 쉽게 생각하고 쉽게 처리해서는 무슨 일이든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을 알라. 4, 9, 11월생 애정으로 기쁜 일 생길 수. 컨디션 조절 잘할 것.

주위 영향으로 변동수 있구나. 3, 5, 6월생 도움 준다고 일확천금 꿈꾸지 말고 서서히 운이 열리는 입구에 다다랐으니 열과 성을 다해 쌓아 올려라. 9, 10, 12월생 금전으로 고심. ㅁ, ㅈ, ㅎ성씨는 북, 동쪽 사람에게 협조를 구할 것.

계속적 노력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성과 있겠다. 2, 5, 8, 11월생 세상의 눈을 신경 쓰지 말고 현재대로 밀고 나가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따를 듯. 기회를 포착하라. 행운은 항상 오는게 아니다. ㄹ, ㅇ, ㅈ성씨 밤길 운전 조심할 것.

새로운 시작보다는 현재의 위치에 안주함이 좋을 듯. 1, 4, 8, 12월생 동료와 사사로운 언쟁 피하고 협력 이룰 때 기대 이상의 결실 있겠다. ㄴ, ㅅ, ㅊ성씨 육체적 피로가 따른다. 신경성이나 소화기 계통 신병 주의. 검정색은 불길.

ㅇ, ㅈ, ㅍ성씨 과욕 버리고 분수대로 대처하면 순조롭게 이뤄지겠다. 그러나 순간에 다른 일이 생겨 날 수 있으니 방심은 금물 또 금물이다. 3, 5, 9월생 정신적인 피로로 건강이 염려되니 일찍 귀가해 자녀들과 함께 하라.

5, 6, 7월생 막혔던 일이 뜻밖에 술술 풀려 가는구나. 급하게 이루기보다는 착실하게 서행으로 한발씩 올라가라. ㄱ, ㅂ, ㅅ, ㅇ성씨 결혼 상대 아닌 이성의 접근에 주의. 후일 후회할 일 생길 듯. 제지나 의류업 종사자는 길.

자신 없다고 망설이지 마라. 소기의 목적이 이뤄지는 길일이다. 4, 7, 10월생 오후보다 오전에 이득이 있겠고 힘든 일은 주위에 도움을 청하면 해결될 듯. 애정면에서 고민이 시작돼도 위기를 모면할 기회가 줘질 듯.

모든 일은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때가 아니니 수양하면서 기다림이 좋을 듯. 애정은 삼각관계로 이어질 수. 용기 있는 자만이 사랑을 쟁취할 수 있듯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접근해 내 것은 내가 챙겨라. 1, 3, 5월생 북, 서쪽이 길함.

순리를 지켜 나가라. 자만은 모든 일을 그르칠 수. ㄱ, ㅁ, ㅈ, ㅎ성씨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지 말고 현상유지에 신경 써야겠다. 2, 6, 9월생 애정면에서 자신은 상대를 좋아하나 만나는 사람은 자신을 멀리하는 격. 파란색이 행운.

새로 시작하는 일 모두가 순조로우나 지출이 너무 많아 걱정되는구나. 1, 4, 7월생 금전관리를 여자에게 맡기고 자기 일에만 충실할 때 대업 성사로 이어질 듯. 미혼자는 범, 뱀, 원숭이띠가 배필이며 8월생은 2, 11월생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경주 교동 최씨 고택, 문화재 명칭 바꾼다

경주 교동 최씨 고택→경주 최부자댁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137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변경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조정안은 해당 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민 누구나 더욱 알기 쉽도록 특별시·광역시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소재지를 사용하도록 했고, 문화재 성격에 따라서 '종택' '고택' '생가' '재사'(제사를 위해 묘소 옆에 지은 집) 등을 부여해 문화재가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당시 소유자의 이름으로 부여된 명칭의 경우에는 족보, 상량문 등 고증자료를 확인해 고택과 관련된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아 그 사람이 머물렀던 거처 이름인 당호(堂號), 이름을 대신해 불렀던 호, 출신 지명이나 관직명 등을 사용해 불렀던 택호(宅號), 그 사람의 성명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택의 역사성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했다.

역사적 주요 인물을 찾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집의 건축적 특징과 사용됐던 용도를 찾아서 명칭을 부여했는데, 대나무 서까래를 사용한 순천 낙안읍성 대나무 서까래집, 고택이 고을의 대장간으로 사용됐던 제주 성읍마을 대장간집 등이 그 예이다.

중요민속문화재 지정 명칭 조정안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김진희 기자

문예회관 예술아카데미 방학특강 수강생 모집

2017년 1월 6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관장 최현묵)이 2017년 예술아카데미 방학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은 현재 진행 중이며, 1월 6일까지 신청받는다. 1월 2일에 개강해 3월 24일까지 12주 동안 평일 주 1회 과정(70분)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개설강좌로는 지난해 개설한 외국인 대상 강좌 'Samulno-ri(사물놀이)'와 방문강의'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해금'과 더불어 '드럼으로 배우는 리듬 읽기', '바리톤 이인철의 오페라&가곡', '악기교실(기타, 해금, 오카리나, 색소폰)'이 있다.

'방학 특강'은 4월부터 시작되는 2017 제1기 예술아카데미의 정규 강좌 개편이 있기 전인 1월부터 3월까지 수강의 연속성을 위해 일부 대상으로 운영한다.

한편 오는 1월 20일 저녁 7시 30분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발표회가 열린다. '다함께 겨울소리'를 부제로 한 수강생 발표회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배운 수강생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장이기도 하다. 이번 발표회는 '바리톤 이인철의 오페라&가곡'과 악기교실 수강생들이 무대를 준비한다. 문의/접수: 교육운영팀 053) 606-6345, 6339

김진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책도 안팔려… 올해 자서전 '0권'

국정농단 사태로 초유의 탄핵 위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과거 박 대통령이 직접 쓴 저서들은 서점의 구석자리 신세를 면치 못하는 분위기다.

27일 인터넷서점 예스24의 집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직접 집필한 2000년에 출간한 '나의 어머니 육영수'와 2007년 출간한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의 경우 올해(1월 1일-12월 26일) 14권이 판매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모친에 대한 기억을 담은 '나의 어머니 육영수'의 경우 14권(이하 예스24 판매 기준)이 판매됐다.

본인의 자서전이자 가장 최근에 발간된 저서인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는 올해 한 권도 팔리지 않았다. 이 책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지난 10월 절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책들은 한 때 1000권 이상이 팔리기도 하는 등 꽤 판매가 이뤄졌지만 박 대통령의 집권 이후 시간이 흐를 수록 판매가 급감했다. '절망은…'은 2013년에 2000여 권이 판매됐지만 2014년에 590여 권, 지난해 420여 권이 팔렸다.

반면에 이번 시국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달 들어서만도 △오만과 무능(전여옥) △박근혜의 말(최종희) △박근혜의 권력 중독(강준만) △박근혜 무너지다(정철운) 등 이 같은 책들의 출간도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담은 책들은 1400여 권이 팔려 기존 박 대통령 관련 도서의 판매량(140여 권)보다 훨씬 많았다.

뉴시스

'까탈스럽다, 주책이다' 등 6항목 표준어 된다

'2016년 표준어 추가 결과' 발표 국립국어원 내년 1월 1일 반영

'걸판지다, 걸울음, 까탈스럽다, 실뭉치, 엘랑, 주책이다'.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같은 6항목의 어휘를 새로 표준어 또는 표준형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2016년 표준어 추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 반영할 예정이다. 복수 표준어 추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국어심의회 등 여러 단계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국립국어원은 1988년 표준어 규정을 고시한 이후, 2011년에 처음으로 '먹거리, 손주, 짜장면' 등 39항목을 복수 표준어로 추가한 바 있다. 2014년부터는 매년 복수 표준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2014년에는 '꼬시다, 놀잇감, 섬찟' 등 13항목이, 2015년에는 '이쁘다, 잎새, 푸르르다' 등 11항목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현재 표준어와는 뜻이나 어감이 달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로서 모두 4항목이다. 그동안 '실뭉치'는 '실몽당이'로 고쳐 써야 했으나 '실뭉치'(실을 한데 뭉치거나 감은 덩이)와 '실몽당이'(실을 풀기 좋게 공 모양으로 감은 뭉치)는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뭉치'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했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실뭉치, 걸판지다, 걸울음, 까탈스럽다' 등이다.

둘째는, 비표준적인 것으로 다루어 왔던 표현 형식을 표준형으로 인정한 경우로서 모두 2항목이다. 그동안 '주책'에 '이다'가 붙은 '주책이다'는 잘못된 용법으로 다루어져 왔고 그 대신 '주책없다'를 쓰도록 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책이다'도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문법적으로도 잘못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주책이다'도 표준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그곳엘랑'은 '표준어 규정'에 따라 '그곳에는'으로 고쳐 써야 했으나 '엘랑' 역시 '에는'과는 어감상 차이가 있고 문법에 어긋난 표현도 아니므로 표준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표준어 6항목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국어심의회(위원장 서정목)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서, 그동안 국립국어원이 어문 규범과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을 위해 시행해 온 어휘 사용 실태 조사와 말뭉치 검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표준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들을 선별했다.

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및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언어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규범에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이 국어를 사용할 때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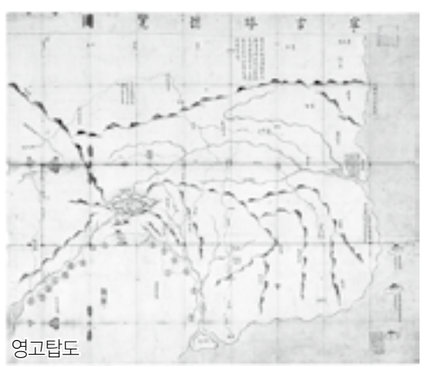
뉴스1

추가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걸판지다	거방지다	**걸판지다** [형용사] ① 매우 푸지다. ¶ 술상이 **걸판지다** / 마침 눈먼 돈이 생긴 것도 있으니 오늘 저녁은 내가 **걸판지게** 사지. ② 동작이나 모양이 크고 어수선하다. ¶ 싸움판은 자못 **걸판져서** 구경거리였다. / 소리판은 옛날이 **걸판지고** 소리할 맛이 났었지.
		거방지다 [형용사] ① 몸집이 크다. ② 하는 짓이 점잖고 무게가 있다. ③ =걸판지다①.
걸울음	건울음	**걸울음** [명사] ① 드러내 놓고 우는 울음. ¶ 꼭꼭 참고만 있다 보면 간혹 속울음이 **걸울음으로** 터질 때가 있다. ② 마음에도 없이 겉으로만 우는 울음. ¶ 눈물도 안 나면서 슬픈 척 **걸울음** 울지 마.
		건울음 [명사] =강울음. **강울음** [명사] 눈물 없이 우는 울음, 또는 억지로 우는 울음.
까탈스럽다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형용사] ① 조건, 규정 따위가 복잡하고 엄격하여 적응하거나 적용하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가탈스럽다①'보다 센 느낌을 준다. ¶ **까탈스러운** 공정을 거치다 / 규정을 **까탈스럽게** 정하다 / 가스레인지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에게 지루하고 **까탈스러운** 숯 굽기 작업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로 비칠 수도 있겠다. ②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러워 맞춰 주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가탈스럽다②'보다 센 느낌을 준다. ¶ **까탈스러운** 입맛 / 성격이 **까탈스럽다** / 돌아이는 사 준 옷이 맘에 안 든다고 **까탈스럽게** 굴었다. ※ 같은 계열의 '가탈스럽다'도 표준어로 인정함.
		까다롭다 [형용사] ① 조건 따위가 복잡하거나 엄격하여 다루기에 순탄하지 않다. ②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럽게 까탈이 많다.
실뭉치	실몽당이	**실뭉치** [명사] 실을 한데 뭉치거나 감은 덩이. ¶ 뒤엉킨 **실뭉치** / **실뭉치를** 풀다 / 그의 머릿속은 엉클어진 **실뭉치같이**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실몽당이 [명사] 실을 풀기 좋게 공 모양으로 감은 뭉치.

추가 표준형	현재 표준형	비고
엘랑	에는	ㅇ 표준어 규정 제25항에서 '에는'의 비표준형으로 규정해 온 '엘랑'을 표준형으로 인정함. ㅇ '엘랑' 외에도 'ㅔ랑'에 조사 또는 어미가 결합한 '에설랑, 설랑, -고설랑, -어설랑, -질랑'도 표준형으로 인정함. ㅇ '엘랑, -고설랑' 등은 단순한 조사/어미 결합형이므로 사전 표제어로는 다루지 않음. (예문)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교실**에설랑** 떠들지 마라. 나를 앞에 앉혀놓고**설랑** 자기 아들 자랑만 하더라.
주책이다	주책없다	ㅇ 표준어 규정 제25항에 따라 '주책없다'의 비표준형으로 규정해 온 '주책이다'를 표준형으로 인정함. ㅇ '주책이다'는 '일정한 줏대가 없이 되는대로 하는 짓'을 뜻하는 '주책'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은 말로 봄. ㅇ '주책이다'는 단순한 명사+조사 결합형이므로 사전 표제어로는 다루지 않음. (예문) 이제 와서 오래 전에 헤어진 그녀를 떠올리는 나 자신을 보며 '나도 참 **주책이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고탑도' '어사고풍첩' 등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10종 귀중자료 지정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 고문헌 28만여 점 중에서 '영고탑도'(寧古塔圖) '어사고풍첩'(御射古風帖) 등 10종 16책의 고문헌을 올해 새롭게 귀중자료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영고탑도

국립중앙도서관은 '동의보감' 등 국보 2종과 보물 10종의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해 총 963종 3475책의 귀중본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서 소장 도서관이다. 귀중자료는 학술적 또는 활자나 인쇄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료적인 가치가 높아 국립중앙도서관 귀중자료 취급 규정 기준에 맞게 특별히 지정·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번에 지정된 주요 고문헌 중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선 지도인 '영고탑도'(寧古塔圖)가 주목을 끈다. 영고탑은 청나라 만주족의 발상지이다. 청나라가 중국 본토에서 밀려날 경우 조선과 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18세기 초기에 제작된 군사지도로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또, 고문서로 1703년 숙종이 후궁 명빈박씨의 빈소에 바친 치제문인 '제문'(祭文)은 격식에 따라 작성한 왕실 제문의 형태를 보여준다. 정조가 1795년부터 1797년까지 활쏘기를 하고 김희(金熺, 1729-1800)에게 고풍(古風, 임금이 활쏘기를 할 때 수행한 신하에게 상을 주던 일)을 내린 내역을 모은 '어사고풍첩'도 정조의 수결(手決)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고서로는 18세기 역관 홍순명이 편찬해 사역원에서 사용된 일본어 어휘집 '왜어유해(倭語類解)'와 일본 통신사행 기록인 '명사록(溟槎錄)', 아동용 한자학습서인 '훈몽자회(訓蒙字會)' 등 국내 유일본 및 희귀본이 귀중자료로 지정됐다.

새로이 지정된 귀중자료는 항온항습시설 등 최신 보존설비 및 방범 방화 시설이 완비된 귀중서고에 보관돼 특별 관리하게 되며, 원문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 서비스한다.

뉴스1

식중독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환자, 전년比 2배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주의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들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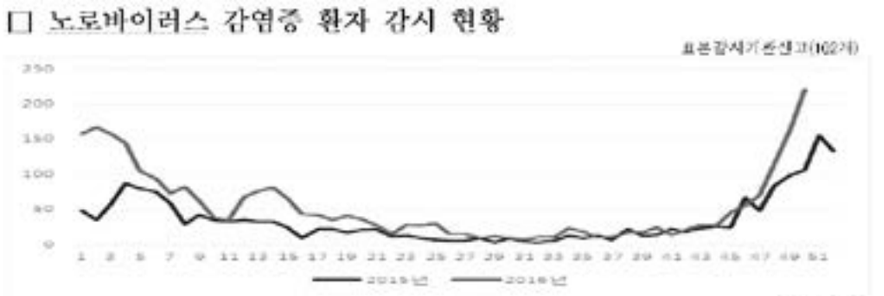
27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102개 표본감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올해 50주(12월4-10일)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총 222명으로 전년 같은주 106명보다 109% 늘었다. 51주(11-17일), 52주(18-25일)은 현재 집계중이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설사, 구토, 메스꺼움,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장관감염증(腸管感染症)이다.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 또는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굴이나 조개류 등을 섭취한 경우 감염된다.

지난달 이후 보고된 급성장관염 집단 유행사례(113건)중 역학조사가 완료된 47건의 40%(19건)는 원인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로 밝혀져 가장 감염건수가 많았다.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감시 현황



(신고 건 수)

주	1	5	10	15	20	25	30	35	40	45	46	47	48	49	50	51	52
2016년	158	105	39	66	37	31	10	19	25	46	56	71	114	164	222	집계중	집계중
2015년	49	80	36	25	21	7	10	10	14	25	67	49	84	99	106	153	133

* 50주(2016.12.04.~2016.12.10.),(2015.12.06.~2015.12.12.)

노로바이러스 유행 사례중 13건(68%)은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집단생활을 하는 유·소아를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

보건당국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관리하기 위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발생시 감염 원인과 전파 경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보건당국은 집단 발병이 일어날 경우 감염원인 식품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람간 전파 사례가 의심되면 문고리, 난간 등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노로바이러스 유전형 분석을 지속 실시하며 변이주로 인한 환자 발생에 대비중이다. 최근 일본에서 노로바이러스 유행주에 대한 조사중 변종이 발견됐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다행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변이주 발견이 없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겨울철에도 손씻기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집단 시설은 환자 구토물 처리 시 소독 등 철저한 환경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이다.

△올바른 손씻기(외출후, 식사전, 배변후,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끓인 물 마시기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 먹기

△채소·과일은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서 벗겨 먹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칼·도마는 소독해 사용하고, 조리도구는 구분해 사용하기)

△환자의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염소 소독(1000-5000ppm의 농도로 염소 소독)

최유희 기자

겨울 우울증

자칫 재발위험…심하면 꾸준한 약물치료 필요

무기력한 우울감이 자주 반복되면 적극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항우울제는 약물의 성분과 작용하는 기전에 따라 삼환계 항우울제(TCA)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 등으로 나눠진다.

이들은 모두 뇌에 작용하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 신경전달물질 농도를 높여 우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은 모두 사람의 행복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몸은 뇌하수체에서 도파민,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많아지면, 균형 유지를 위해 원래 분비세포로 이들을 재흡수를 한다. 항우울제는 이 재흡수 과정을 억제해 세로토닌, 도파민 등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뇌조직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삼환계 항우울제는 이 중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과 일부 도파민 분비를 조절한다. 약은 '이미프라민', '세레칸', '애트라빌', '센시발', '키누민', '아디센' 등이 있으며, 어지러움, 두통, 입마름 등의 부작용이 있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는 말그대로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이 분비세포로 다시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신경전달물질의 농도를 유지시키는 약물이다. '푸로작', '졸로푸트', '듀미록스' 등이 대표약이다.

또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는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두가지 신경전달물질의 농도를 유지시켜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약으로는 '심발타', '이팩사' 등이 있다.

항우울제 복용 시 주의할 점은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계속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을 갑자기 끊게 되면 약의 종류에 따라 구토, 소화장애,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무엇보다 우울증이 재발할 수 있다.

우울증이 재발한 경우 수년 이상 꾸준히 약물을 복용해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을 지속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단, 약물 치료를 중단해야 할때는 전문의의 판단 아래 서서히 줄여야 한다.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은 교수는 "우울증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며 "치료 없이 자연스럽게 회복해도 재발 가능성이 높아 전문의에게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최유희 기자

내년부터 쌍둥이 이상 임신·출산 부담 줄어요

다태아 임신부 임신·출산 진료비 20만원 상향 지원… 병원 종별 본인부담률 20% 낮아져 부담 경감

내년부터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20만 원 상향 조정된다.

또 임신부의 외래진료와 조산아·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력했다.

개정안에 따라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임신부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 종합병원은 45-50%에서 30%, 일반병원은 30-40%에서 20%,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에서 10%로 각각 인하된다.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임신부도 부담률이 14%에서 5%로 낮아진다.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에서 70% 수준을 적용해왔던 것을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도 본인부담률을 14%에서 5%로 낮췄다.

다만 올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해 이용권이 발급됐거나 그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또 이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만 3세까지의 조산아나 저체중 출생아에 대해 전산화단층촬영 등 일정한 외래진료에 대해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율을 85%에서 9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류재현 기자

당뇨환자, 추울수록 움직이세요!

합병증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운동' 실내 자전거·가벼운 전신운동 좋아

서구화된 식습관과 함께 운동부족,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 당뇨센터 김경진 교수는 "당뇨병은 평생 잘 관리해야만 건강을 유지하고 다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운동"이라고 말했다.

▣운동, 당 소모시키고 인슐린 감수성 높여

당뇨병 환자는 당을 소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산소 운동은 당을 소모해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혈당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식사 후에는 30분에서 1시간정도의 휴직을 가진 후에 산책 및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에 전달돼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당뇨병이 발생한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 체내의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혈당조절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비만을 줄인다. 지방세포는 인슐린저항성을 높여 혈당 관리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운동을 통해 지방세포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산소운동과 근력강화운동 병행하면 효과 높아

겨울철에는 외부활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가벼운 전신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걷기, 속보, 수영,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량을 높여 칼로리를 더 소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력강화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것도 좋다.

운동은 최대 심박수의 60-80%가 효과적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강도는 높게 유지하고 연령이 높으면 강도를 이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유산소 운동은 적어도 20-30분 이상에서 1시간 미만으로 하고, 근력강화운동은 15분 정도면 충분하다. 운동 빈도는 주당 3-5일이 적당하다. 실내에서 가벼운 아령 들기, 스트레칭 밴드를 이용해 스트레칭 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도 겨울철에 하기 좋은 운동이다.

▣운동 전 혈당체크 필수, 300 mg/dl이상이면 운동 금해야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시작할 때는 꼭 혈당체크를 해야 한다. 운동을 시작하는 처음 일주일은 특히 혈당체크가 중요하다.

공복 혈당이 300 mg/dl 이상인 경우에는 운동을 해도 제대로 포도당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지 않고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면 몸에서 케톤이 발생해 오히려 몸을 힘들게 한다. 케톤이 몸 안에 심하게 쌓이면 혼수상태까지 올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소변에 케톤이 양성으로 나타날 때도 운동은 금물이다.

또 공복 시나 식전에는 저혈당이 되기 쉽기 때문에 운동을 피하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2시간 이상 장시간 운동을 한다거나 뜀뛰기와 같은 충격적인 운동을 하는 것은 피하고, 만약을 대비해 파트너와 함께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운동 중 저혈당이나 탈수 현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상황을 담당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당뇨병 합병증 환자는 운동 시 특히 주의

당뇨병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당뇨발의 경우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당뇨발 전용 신발을 착용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고정식 실내 자전거의 경우 발에 큰 압박이 가해지지 않으면서 날씨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하고 넘어질 위험도 없기 때문에 당뇨발 환자에게 적합하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는 환자는 눈에 압력이 가는 운동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무거운 걸 들거나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은 피하고 가볍게 걷기 정도가 추천된다.

최유희 기자

신장이식 환자, 비타민D 부족… 급성거부 반응 3배↑

신장이식 환자에서 비타민 D농도가 부족하면 이식 후 초기 급성거부반응 발생이 3배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7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장기이식센터(신장내과) 양철우·정병하·반태현 교수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 174명을 대상으로 이식 전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해 급성거부반응, 감염 및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D는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며 부족하게 되면 대사성 뼈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뼈 생성 뿐 아니라 암, 감염질환, 인지기능장애, 당뇨, 고지혈증, 면역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장 질환에서 비타민D는 만성 신부전 환자의 대사성 골 질환 등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신장이식 전 측정한 비타민 D 농도가 이식 후에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결과 이식 전 대부분(98.2%)의 환자에서 비타민 D 부족이 관찰돼 부득이하게 전체 환자를 농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눴다. 세 그룹은 저농도 그룹 59명(8.3 ng/ml 미만), 중간농도 그룹은 57명(8.3 ng/ml 이상-12.1 ng/ml 미만), 고농도 그룹은 58명(12.1 ng/ml 이상)으로 이식 후 합병증 발생을 확인했다.

이식 전 비타민D 농도에 따른 이식 후 1년 이내 급성거부반응 발생율은 저농도 그룹 25.4%(15명), 중간농도 그룹 17.5%(10명), 고농도 그룹 8.6%(5명)로 비타민 D 부족이 심할수록 이식 후 1년 이내에 급성거부반응이 3배 높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반해 감염이나 골다공증 발생 정도는 세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급성거부반응은 일반적으로 무증상이지만 방치하면 이식신장의 기능소실과 연관돼 이식 후 조기에 식욕부진, 소변량 감소, 부종, 호흡곤란 등 신장 기능 저하에 따른 요독과 관련된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급성거부반응이 잘 발생하는 이식 후 초기에 의심이 된다면 이식신장 조직검사를 통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권장된다.

신장내과 정병하 교수는 "이식 전 만성신부전 환자들에서 적절한 비타민D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식 후 급성거부반응으로 인한 이식 초기의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임상연구결과는 이식 분야의 국제 학술지 'Transplant Immunology' 11월호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이상하 기자

‘빙속 여제’ 이상화 동계AG 출전권 획득

스프린트선수권 500m 1차 레이스서 1위

잔여 월드컵 불참 선언… 세계종별선수권·아시안게임 집중

‘선택과 집중’을 택한 ‘빙속 여제’ 이상화(27·스포츠토토)가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와 삿포로 아시안게임에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상화는 27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43회 전국남녀 스프린트 스피드선수권대회 여자 500m 1차 레이스에서 38초64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내년 2월 개최되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렸다. 남녀 500m와 1000m의 경우 이번 대회 1차 레이스 상위 2명에게 동계아시안게임 출전권을 준다.

1위에 오른 이상화는 가볍게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여자 500m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이상화는 ‘선택과 집중’을 선언한 상태다.내년 2월 9-12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릴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와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생각이다.

일단 남아있는 월드컵 대회에는 모두 불참한다. 내년 2월 25-26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개최되는 세계스프린트선수권대회에도 나서지 않는다.

빙상연맹은 아시안게임과 그라나다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파견 선발자를 제외하고 이번 대회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남자 2명, 여자 2명에게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차 대회 출전권을 부여한다.

동계아시안게임 출전자로 선발된 이상화는 월드컵 5차 대회에 나설 수 없다.

이상화는 이날 “세계스프린트선수권대회는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5일 뒤에 열려 출전하지 못할 것 같다. 월드컵 파이널 출전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는 월드컵 대회를 석권하고 세계종별선수권대회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제 몸 상태가 다르다. 목표한 것에 집중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 단거리의 경우 아시아 선수들이 석권하고 있어 아시안게임도 올림픽만큼 큰 대회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에 더 주력할 생각이다.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 직후 아시안게임이 있으니 재미있게 놀고 온다는 생각으로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이상화는 국제대회에서 500m와 1000m에 모두 출전했지만,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와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는 500m에만 나선다.

이상화는 “500m에만 주력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보다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지만, 동계아시안게임은 메이저대회 가운데 이상화가 유일하게 금메달이 없는 대회다.

이상화는 2007년 창춘 아시안게임에서 500m 은메달을 땄고, 2011년 아스타나-알마티 대회에서도 500m 은메달에 그쳤다.

이상화는 “2011년 아시안게임이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 이후에 있었다. 올림픽 직후에 아시안게임을 해서 꼭 1위를 해야한다는 부담과 욕심 때문에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저에게는두 개의 올림픽 금메달이 있다”며 마음의 여유를 갖겠다고 강조했다.

마음에 여유가 부족해 월드컵 1-4차 대회에서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하는 이상화는 ‘여유’라는 말을 계속 입에 담았다.

이상화는 올 시즌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4차 대회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그는 월드컵 4차 대회를 앞두고 오른 종아리 미세 근육 파열이 생겨 9위로 부진했다.

이상화는 “당연히 1위를 해야한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던 것 같다. 1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쫓겨서 안하던 실수도 나왔다”며, “많이 힘들었다. 무기력한 상태이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고질적인 왼 무릎 부상에 오른 종아리 근육 미세 파열까지 생긴 이상화는 “부상을 배제하더라도 여유있게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동계아시안게임과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 각오를 묻는 말에도 이상화는 “모든 선수들이 대회에 나설 때에는 금메달을 따길 원한다. 하지만 나는 금메달보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예전에는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동기부여가 됐지만, 지금은 이도 다르다.

이상화는 “항상 정상에 있을 수는 없다. 지금은 라이벌이 된 선수들과 경쟁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전했다.

종아리 상태에 대해서는 “혈액 순환이 잘되지 않고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즌이라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치료를 병행하면서 운동을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상에도 이날 기록에는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아직 피곤한 상태인데 기록에는 나름 만족한다. 월드컵 1-4차 대회에서는 급한 마음으로 레이스를 했는데 오늘은 여유있게 탔다”며 웃어보였다.

이상화는 세계종목별선수권대회 이전에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 국내 대회에 나설 전망이다.

이상화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 몇 개 대회에는 나갈 것 같다. 캐나다로 떠나 훈련할 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프로배구 V-리그 전반기 마감 외국인 선수 ‘몰빵배구’ 여전

프로배구 V-리그가 전반기 반환점에 다다른 가운데 외국인 선수들의 공격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현재 남자부 득점 순위 1-5위까지는 모두 외국인 선수들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자부의 경우 올 시즌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공개 선발 드래프트)를 통해 전력을 보강했다.

V-리그는 지나치게 높은 외국인 선수의 몸값을 낮추고 토종·용병 선수 간 공격점유율 격차를 줄여 다양한 전술 구사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트라이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시즌에 비해 외국인 선수의 득점에 의존하는 ‘몰빵배구’는 줄어들었지만 각 팀들의 감독에게 외국인 선수는 강력한 공격 옵션 중 하나다.

삼성화재 타이스 덜 홀스트는 올 시즌 18경기(76세트)에 나서 587득점(공격성공률 54.58%)의 활약을 보이며 득점 선수 1위를 달리고 있다.

신치용 전 삼성화재 감독은 ‘몰빵배구’로 왕조를 세웠다. 안젤코 추크(크로아티아), 가빈 슈미트(캐나다), 레오나르도 레이바(쿠바·등록명 레오) 등 특급 외국인 선수들을 앞세워 챔피언결정전 7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지난 시즌에는 괴르기 그로저(헝가리)를 앞세웠지만 정규리그 3위에 그쳤다.

올 시즌도 마찬가지다. 삼성화재는 타이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다. 리시브가 어느 정도 되면 어김없이 타이스에게 공이 올라간다.

다만 박철우가 군 제대 후 팀에 합류하면서 타이스의 의존도는 줄어들었지만 몰빵배구는 여전하다.

미차 가스파리니(대한항공)는 436득점(공격성공률 50.48%)으로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다. 가스파리니는 강력한 서브를 통해 상대 팀을 괴롭히고 있다. 가스파리니는 서브도 1위(세트당 0.608개)에 올라있다.

우리카드의 크리스티안 파다르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파다르는 17경기에서 416득점(공격성공률 50.57%)로 전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파다르는 퀵오픈 성공률에서도 타이스(66.67%)에 이어 66.22%로 2위를 달리고 있다.

KB손해보험의 아르투르 우드리스(389득점·공격성공률 48.65%)와 한국전력의 아르파드 바로티(388득점·공격성공률 48.75%)도 각각 득점 순위 4, 5위를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

선두 현대캐피탈은 올 시즌 몰빵 배구를 지양하고 있다. 현대캐피탈의 외국인 선수 톤 밴 랭크벨트(등록명 톤)은 득점 순위 9위에 자리 잡았다. 톤은 올 시즌 18경기에 나서 267득점(공격성공률 52.54%)을 기록중이다.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은 수비력이 좋은 캐나다 출신의 톤을 영입했다. 외국인 공격수의 비중을 줄이고 문성민, 노재욱, 신영석 등 대부분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에 가담하는 ‘토탈 배구’를 앞세워 선두를 달리고 있다. 뉴시스

변화의 한화, 외인 선발 과제 안고 2017년으로

연봉 협상은 26일 시작… 빠르면 연내 마무리 될 수도

‘정중동’의 행보로 어느 때보다 조용한 오프시즌을 보내고 있는 한화.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있다. 프로야구 2017시즌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외국인투수 영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한화는 2016 시즌 외국인 선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외국인 타자 로사리오는 활약을 펼쳐줬지만 외국인 투수 2명의 자리가 항상 고민이었다. 2015시즌 막판 활약한 로저스는 부상으로 중도 이탈했고, 마에스트리, 카스티요, 서캠프 등은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4명의 외국인투수가 합작한 승수는 13승(14패 1세이브)에 불과했다. 가뜩이나 투수가 부족한 한화로서는 외국인투수들의 부진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시즌이 끝나고 김성근 감독의 유임이 확정됐고, 김 감독은 내년 시즌 확실한 ‘원투펀치’를 할 외인 투수 2명을 영입해 줄 것을 구단에 요청했다.

하지만 한해가 다 지나가는 시점에서 한화의 외인 영입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외국인 타자 로사리오와의 재계약을 마무리했을 뿐이다.

한화 박종훈 단장은 이에 대해 “영입 리스트를 추렸고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 다만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40인 로스터 정리가 되지 않은 팀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 투수를 영입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구단들의 경우 하나 둘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영입한 상황이기에 조바심이 나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한화는 지난 시즌에도 로저스와 호흡을 맞출 투수의 영입을 개막 3주를 앞두고 간신히 영입했다. 그때 데려온 투수는 마에스트리로, 그는 메이저리그 출신도, 좌완도 아닌 평범한 투수에 불과했다. 지난 시즌의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박 단장은 이에 대해 “지난 시즌의 경우 프런트에서 추천한 몇 명의 투수를 김성근 감독이 거절했고, 끝내는 더 나은 투수를 찾지 못한 사례였다”면서 “올 시즌에도 결국은 감독님과 소통을 해야겠지만 프런트의 역량에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영입 시점은 해를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단장은 “2017년이 되면 메이저리그 구단의 로스터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다. 40인 로스터에서 빠지는 투수들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영입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선수들의 연봉 협상은 지난 26일 시작됐다. 예년과 달리 연봉 협상 시작이 다소 지연되면서 우려를 낳았지만, 박 단장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난 시즌 성적이 썩 좋지 않았기에 연봉 협상의 기준을 세우는 데 다소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협상 첫날부터 20명이 사인했다. 빨리 진행된다면 이번 주 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했다. 뉴스1

NC, 외국인 타자 스크럭스 영입… 총액 100만 달러

에릭 테임즈를 메이저리그로 떠나보낸 NC 다이노스가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재비어 스크럭스(29)를 영입했다.

NC는 27일 올해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뛴 스크럭스와 연봉 80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약 12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장 183㎝, 체중 98㎏의 체격을 갖춘 오른손 타자 스크럭스는 올해 마이애미에서 1루수로 뛰었지만, 외야 수비도 가능하다.

네바다 대학교에서 주전 3루수로 뛴 스크럭스는 200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9라운드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지명을 받아 프로 무대를 밟은 후 1루수로 포지션을 바꿨다.

세인트루이스 소속이던 2014년 빅리그에 데뷔한 스크럭스는 올해 마이애미로 이적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세 시즌 동안 통산 50경기에 출전한 스크럭스는 타율 0.227 1홈런 14타점에 출루율 0.292 장타율 0.303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빅리그에서 2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10 1홈런 5타점의 성적을 냈다.

스크럭스는 최근 3년간 메이저리그를 오가면서도 트리플A에서 주로 뛰었다. 스크럭스의 트리플A 통산 성적은 타율 0.271 56홈런 194타점 출루율 0.371 장타율 0.485다.

NC는 “스크럭스는 좋은 레벨스윙을 갖춘 파워히터로, 테임즈의 파괴력에 뒤지지 않아 빈자리를 잘 메워줄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다른 선수들에 밀리지 않는 주력으로 도루도 종종 기록했다. 내년 시즌 다시 ‘뛰는 야구’를 준비하는 NC의 ‘달리는 4번 타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스크럭스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 설렌다. 창단된지 얼마되지 않은 NC가 만들어낸 성과가 놀랍다. 이런 팀에 합류하게 된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라며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근 결혼해 신혼여행 중인 스크럭스는 내년 1월 중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한 후 전지훈련이 시작하는 2월1일 팀에 합류할 계획이다. 뉴시스

오늘… 생각한다

■ 광역칼럼

정치인이여, 기업을 놓아주라

류 동 길
숭실대 명예교수

광장은 '촛불'로 뒤덮이더니 촛불민심만 민심이 아니라며 태극기 부대의 '맞불'도 등장했다. 그런가 하면 침묵하는 다수는 행동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걸 지켜보고 있다. 민생은 매우 어렵고 정치판은 갈팡질팡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017 세계경제는 정치의 손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

세계경제의 바다에는 험한 풍랑이 일고 있다. 기업경영인들은 이를 헤쳐 나가야 한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설치면 기업과 경제는 죽는다. 우리는 한국을 이끄는 세계적 대기업 총수 9인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 모욕주는 장면을 보았다. 우리의 청문회는 '듣는다'(hearing)는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닦달하고 겁박하는 장이 돼있다. 고압적 성토와 질문을 길게 해놓고 답변하려면 시간 없다며 끊는다.

국회 하는 일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해산에 찬반의견을 묻고 손들어보라고 하면 말이 되는가. 주주의 신임을 얻은 경영자를 물러나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의원 물러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기업에 잘못이 있다면 법절차에 따라 응징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부서를 해체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억지다.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정치권력의 관심 사업에 힘을 보태지 않고 독립운동 하듯이 버틸 기업은 없다. 대가성 여부와 강압이냐 자의냐를 묻는 것도 의미 없는 질문이다. 과거 5공 청문회 때 "돈을 내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해냈다"는 고 정주영 회장의 명답을 음미해보라. 정치권력은 기업을 봉으로 알고 돈을 요구하면서 정경유착을 시비하는 것도 우습다.

기업은 정치와의 절연을 바란다. 하지만 정치권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기업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역대 정권의 핵심사업은 기업의 돈으로 해왔다. 올림픽, 대북사업, 동반성장기금, 미소금융,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그랬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도 최순실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과거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업인들의 일탈행태를 옹호하거나 기업인들의 행동이 떳떳했다고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증인으로 나온 기업인들을 모욕하고 죄인 취급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말하고자 함이다. 기업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기업인들의 헌신과 기여를 조롱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치인, 국회의원이라면 세계경제의 흐름과 우리 기업이 처한 환경을 한 번 점검해봐야 한다. 탄핵정국에 맞춰 국회의원들은 기업규제를 강화하거나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법안을 쏟아내려고 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무너지고 있고 미래가 불안한 기업은 고용과 투자를 늘릴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개혁을 무력화하려는 정치투쟁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의 국회는 권한은 크지만 그에 걸맞은 책임은 지지 않아 제왕적 국회다. 대통령만 제왕적인 게 아니다. 국회는 지난 4년간 노동개혁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들먹였다. 이런 모순된 행태가 어디 있는가. 국회의원은 수가 적고 조용할수록, 기업인은 수가 많고 왕성하게 활동할수록 경제는 성장한다. 기업인은 기업경영에만 신경 쓸 수 있는 맑은 세상을 이제는 한 번 만들어봐야 한다.

■ 나의제언

수리권으로 본 대구취수원 이전

김 휘 태
안동시 공무원

대구취수원 이전을 이야기한지 10년도 넘었지만 애꿎은 구미시만 원망하고 있는 대구시나 남의동네 불구경하듯 방관만 하고 있는 경북도나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일선에 서 있는 북부지역 시·군이나 모두가 마땅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또 한해가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더군다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구미 상류지점은 공단 유해물질을 피한다고 해도 그보다 더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녹조 발생으로 이제는 취수원 이전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강변여과수 등 취수원 다원화 방안도 검증되지 않은 어려운 현실임을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정부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은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향후 수자원공사 경영차원의 물값 인상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 수도법으로 지방광역상수도사업도 가능하고 민간상수도사업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리권 차원에서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수공광역상수도사업과 지방광역상수도사업을 비교해보면, 우선 수공상수도는 경영차원의 이윤을 창출해야 하지만, 지방상수도는 공영으로 서민생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정 공공요금으로 운영되며, 수공상수도 재정은 외부로 유출돼 수공경영에 쓰이지만 지방상수도 재정은 지역에 투입돼 지방자치에 쓰이며, 수공상수도는 외부 인력과 기술로 운영되지만 지방상수도는 지역 인력과 기술로 운영되므로 인력과 기술 육성의 선순환구조가 이뤄져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천에 흐르는 물은 공공재로서 그 지역에서 합리적으로 이용할 분명한 권리가 있고, 그런 만큼 그 지역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할 책임도 있으며, 하천은 지역경계를 넘어서 연속적으로 흘러 수계로 관리되므로 상·하류 지역 간에 상호협력 해 맑은 물을 취·정수해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그러므로 대구경북 시·군 상·하류지역 간에 상호협력 해 북부지역 상류에서 맑은 낙동강 물을 대구지역에 공급해주고 대구취수원에서 상류로 하천유지수를 되돌려주는 낙동강 물 선순환 구조 지방광역상수도사업을 지역의 수리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안해본다.

이렇게 상류순환이 이뤄진 후에 만약 현재 위치의 대구취수원에서 오염수가 유입되면 상류로 도수를 중단하고 상류취수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비상급수 하는 안전대책도 미리 마련해 상류지역 주민들이 대구취수원 이전에 따른 걱정을 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 방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당장 대구지역 맑은 물 공급대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뜻임을 밝혀두면서, 구미공단의 중금속 화학물질과 낙동강 보의 독성녹조 등의 오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오염유입 완전차단과 항구적인 수질개선 대책이 하루 빨리 추진되기를 소원하는 바이다.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나 다른 지역을 바라보고 타 기관에 의지하고 하소연 할 일이 아니라 대구경북 우리 스스로 뭉치면 대구취수원 이전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며, 오히려 상·하류지역 간에 맑은 물 공급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2017년 새해에는 꼭 실천해보자!

社 說

AI재앙에 황교안 대행은 무엇하고 있나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이던 대구에서 AI가 검출됐다. 지난 22일에 대구 동구 신서동 아파트단지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것이다. 발견한지 나흘만인 26일에야 AI로 판명된 것도 너무 늦었는데 고병원성 여부는 다시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번 AI가 발견된 종은 지난 12일 경북 경산에서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큰고니와 같은 종이다. 이에 따라 지방환경청과 동구청은 AI 확산방지를 위해 큰고니 서식지인 금호강에 대한 예찰강화와 출입통제, 거점소독 등 일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동성이 큰 야생조류가 겨울철 안정된 서식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새 이동·분산방지를 위한 지역민 협조당부' 사항을 안내하고 예찰을 전개 중이다.

구체적으로 동구청은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큰고니 사체 발견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 전용소독과 연막소독을 하고, 금호강의 제방 진입로를 차단한 뒤 통제초소를 설치한 상태다. 또 습지 우회도로와 금강동 진입로에는 소독 부직포를 깔아 이동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하지만 경산 김천 신서동 등 AI가 야금야금 침투해 오는 것으로 봐 대구지역의 AI유행도 시간문제가 아닐지 불안해진다.

지난달 16일 첫 AI가 발생한 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의심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빠르게 전국각지로 확산되면서 26일 현재 260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특히 달걀을 낳는 산란계의 피해가 심각하다. 번식용인 산란 종계의 경우 사육 규모 대비 43%나 사라졌다. 산란계로 키울 병아리마저 줄어 피해가 장기화될 것이 염려된다.

재앙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AI 확산은 물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란값은 30%나 치솟았다. 정부가 계란 가공품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란 운송비 50%를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수입란 한 판에 7000원이 넘을 것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재앙수준의 AI에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보다 중심을 잡아야 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총리가 AI 사태수습에 매달릴 생각은 않고 시찰행정에 열중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생하고도 100만 마리 살처분에 그친 일본을 배워야 한다. 아베 총리가 관저에 상황실을 설치했을 정도로 초기진압에 총력 경주한 것을 배워야 AI를 진압할 수 있다.

반기문 총장, 금품수수설 깔끔한 마무리를

대선주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드디어 언론 시험무대에 올랐다. 반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실세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가 사법처리된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인 박 전 회장이 유엔 사무총장 취임 전후에 반 총장에게 달러화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달 말 퇴임할 예정인 반기문 총장은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 한 몸 불사르더라도 노력할 용의가 있다"며, 내년 대권도전을 기정사실화한바 있다. 따라서 반 총장이 국내 어느 정당과 손잡느냐에 따라 정치지형도가 바뀔 판국이다. 그런 중차대한 정치적 기로에 서 있는 반 총장이 때 아닌 뇌물수수설에 휘말린 것이니 예사롭지 않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시사저널이다. 시사저널은 반 총장이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반 총장이 금품을 받은 때는 2005년 외교부장관 시절 20만 달러와 2007년 유엔사무총장 취임초 3만 달러 등 두 차례다. 만약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반 총장의 정치인생은 끝장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 정도로 모든 정치인에게 금품 수수사건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출마설이 나오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심상치 않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 전 중수부장이 반 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돌자 "반기문 웃긴다"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나"라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 전 중수부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한 것이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한편, 박 전 회장과 반 총장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반 총장은 시사저널 측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번 일을 두고 대선주자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해선 안 된다는 시각과 함께 피해자인 반 총장이 적극적으로 고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음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사과요구와 같은 물렁한 대응이 아니라 고소를 통한 적극적 대응이라야 의혹을 잠재울 수 있다는 의미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일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편집인·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욱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도, 철도산업으로 미래 달린다

2016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 과제 평가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16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철도차량 핵심부품 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공모에서과제평가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1세기 고속철도의 성장과 미래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철도차량사업을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철도차량 핵심부품 중 내연기관 자동차와 상호 협력 가능한 미래 기술 도출로 시장 파이 성장에 따른 자동차 미래산업 변화 등 지역자동차 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경북도와 경산시가 기획하고 추진한 사업으로 향후 3년간 200억 원(국비100억)이 투입된다.

사업추진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철도차량 시험인증 선두주자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한국철도협회가 참여한다.

사업내용은 전문지원센터를 구축해 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뢰성테스트 및 인증 지원, 주요부품 기술표준화에 따른 철도기술표준 정비, 중소영세기업의 기술적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 및 컨설팅 지원, 철도차량 관련 부품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설계지원 웹서비스 구축 등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된 기반을 활용해 철도차량의 핵심부품인 대차, 제동, 전장, 의장관련 부품에 대한 인증시험을 바탕으로 핵심부품 R&D개발과 핵심기술 국산화, ICT 관련 이종소재산업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로 기술수출국으로 도약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철도차량 핵심부품 기반이 구축되면 구미-대구-경산간 광역철도, 내륙 및 동해안 복선전철, 포항 KTX 등 수도권-남부-부산-동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망 중심지 부상의 기회로 삼고 있다.

국내 철도시장은 1970년대 시작해 현재 1조7000억 원이나 내수시장에서의 비중은 세계 철도시장 1%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각종 탄소 배출가스 규제 등 지구환경문제의 지속적 제기로 일부 철도차량부품 전문가들은 수요가 2025년 약 610조 원으로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도에서는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자동차 부품산업, 건설기계부품, 탄소 부품산업, IT, 기계부품 등 전·후방 연계 산업기반으로 2020년에는 강소기업 10개사 유치 등 철도차량 시장확대와 직·간접으로 2만 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

찾아가는 문화예술정책… 문화소외지역 없앤다

경북도, 문화복지 혜택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 지원

경북도는 내년도에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먼저, 도에서는 국악, 연극, 무용, 음악 등 90여개 예술단체를 선정해 문화소외지역에서 공연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소외지역 공연을 계획한 단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예술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서구입, 공연·영화 관람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교육프로그램인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의 심사기준에 문화소외지역의 공모신청에 대한 가산점을 제도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술가들이 입주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예술교육,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는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소외지역에서 입주예술가들의 작품전시회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개설 등의 조건을 공모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도립예술단 공연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지역 예술동호회와의 합동공연, 협연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문화소외지역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도립예술단 공연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문화소외지역의 기업, 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연 수요를 찾아나서는 등 '문화소외지역 없는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용구 기자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 여성 취·창업 지원 '톡톡'

지난해 5개 교육과정에 100명 수료 59명 취·창업 올해는 9개 교육과정에 192명 수료 86명 취·창업

경북도는 지난해 출범해 올해 두번째 수료생을 배출한 경북여성일자리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가 여성 전문인력 양성과 취·창업지원을 총괄하는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범 첫해인 지난해 5개 교육과정에 100명이 수료해 59명이 취·창업을 했고, 올해는 '재활승마지도사과정'을 비롯한 9개 과정에 192명이 수료해 현재 86명이 취·창업에 성공했으며, 나머지도 취·창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이는 교육위탁기관,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생 수 등에 변화를 둔 덕분이다. 위탁기관은 지역대학에만 위탁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했고, 교육 특성에 맞춘 현장실습 위주 교육, 교육기간도 3개월에서 9개월까지 탄력적 운영, 교육생 수도 수요에 맞춰 늘린 결과이다.

특히, '(사)체험학습개발협회 경북교육사업단'에 위탁한 '여성 농촌관광전문 해설사 양성과정'은 최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인해 25명의 수료생 전원이 취·창업할 전망이다.

현재, 17명은 체험농장 등 관련업으로 창업, 2명은 체험 강사, 1명은 체험농장 사무장으로 취업을 했으며, 나머지 5명도 취·창업 준비 중으로 100%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수료생 중에서 창업에 성공한 유 모 씨(30세, 포항거주)는 "여성일자리사관학교가 없었으면 창업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며,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 새로운 도전에 나서면 좋겠고, 이를 위해 주저하지 말고 일자리사관학교의 문을 두드려라"고 권유했다.

사관학교와 함께 경북여성의 일자리를 찾아주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도내 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도 여성의 새 일터를 찾아주는데 일조를 했다.

새일센터에 구인구직을 신청한 여성은 총3만7699명 (구인 1만7961명, 구직 1만9738명)으로 지난해 총3만1549명(구인 1만5991명, 구직 1만5558명)보다 구인구직건수가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취·창업에 성공한 여성은 7010명에 이른다.

도내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은 7개 시군의 지역 새일센터와 1개의 광역 새일센터가 있다. 광역새일센터는 지역새일센터와 새일센터 미설치 시·군을 총괄 지원하고 있으며, 새일센터 미설치 시·군에는 취업설계사 1명씩을 배치해 여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막걸리의 참 맛, 생막걸리는 바로 경북!

상주시 '은자골 생탁배기' 2016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대상

경북도는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2016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생막걸리 부문에서 '은자골생탁배기'가 최고영예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상주 은척 양조장의 은자골생탁배기는 삼백의 고장인 상주 쌀을 원료로 자체 생산하는 전통 누룩으로 빚은 우리술로 충분한 발효과정을 거쳐 다량의 유산균과 효모를 포함하고 있다.

그 청량함이 남 달라 음용 후에도 머리가 맑고 뒤끝이 깨끗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 생막걸리이다. 최고상인 대상 수여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소정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상주 은척 양조장은 3대째 가업으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향토뿌리기업으로 ISO22000, 술 품질인증, 6차산업 등 대내외적으로 인증받은 양조장으로 전통의 맥과 현대의 기술력이 공존하고 있는 선도 양조장이다.

특히, 누룩제조장 등 가족 체험형 양조장의 시설을 갖추고 전통 누룩을 활용한 체험교실 운영, 각종 봉사활동 등으로 전통주 산업을 관광·체험까지 영역을 확장한 점을 인정받아 2016년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우리술 품평회는 2007년을 시작으로 9회째이며, 서류심사와 교수, 소믈리에, 우리술 연구가, 양조 전문가 등 4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맛, 향, 색상, 후미 등 제품심사를 통해 당해 최고의 술을 선정하는 행사로 업계 최고 권위의 품평회이다.

임현성 경북도 FTA농식품유통대책단장은 "지난 김치품평회 대상에 이어 이번 결과로 지역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며, "그동안 전통주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품질경쟁력 강화,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 국내유명 박람·전시회 판촉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함께 한 결과이다"고 강조했다.

이은진 기자